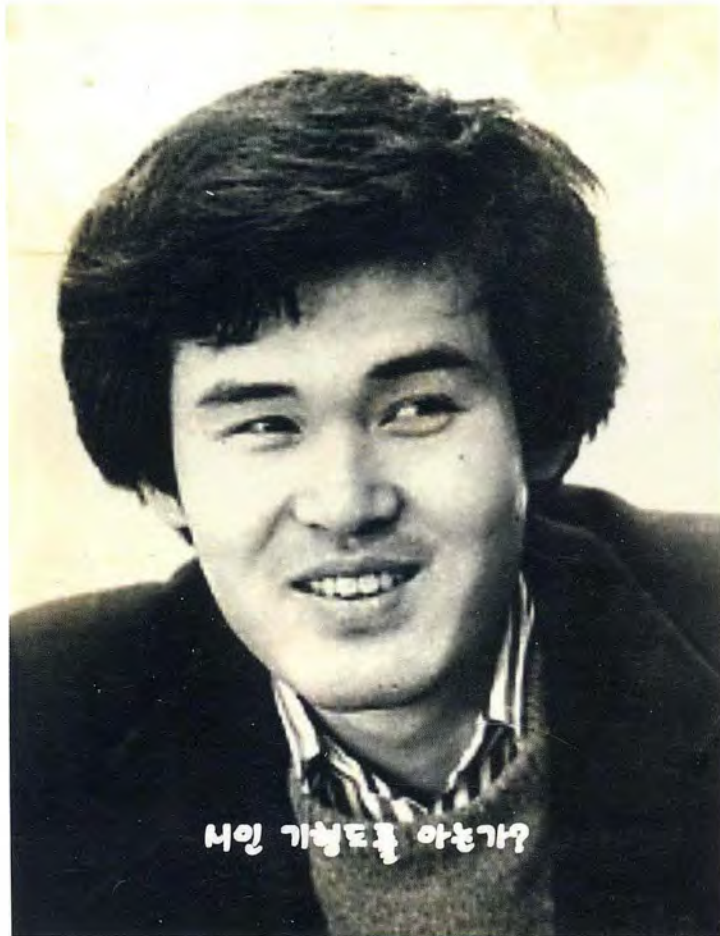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문화마당

광명문화저널

광명문화저널 • 2003 - 제 10호



너인 기형도를 아는가?

특집 - 기형도의 삶 / **논단** - 참여정부 지역문화 정책 / **탐방** - 문화동아리 빛누리 독서회
기획 - 광명동 시리즈 / **문화답사** -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삼성 교통 박물관

2003 10호

광명문화원

빈 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짙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Contents



표지 시인 기형도를 아는가?

29세의 나이로 요절한 시인 기형도가 그의 고향 광명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시인을 사랑하는 광명시민들이 모여 기형도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기념관 건립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인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광명문화저널 제 10 호

발행처	광명문화원
발행인	정원조
편집인	이종락
편집팀	한옥현 / 신관희 / 이은경 / 심평섭
감수	윤철
발행일	2003. 9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명문화저널 제 10호 2003. 9

2 특집 / 시인 기형도의 삶

논단

10 참여정부 지역 문화정책

지역속으로

- 18 향토사 - 광명의 옛 사찰지를 찾아서
- 20 광명의 인물 - 권유와 안동권씨
- 22 광명에서 시작되는 지역통화
- 28 광명의 동문화를 찾아서 (광명1동 ~ 4동)
- 32 제2회 청소년 문화축제
- 34 [만남] 푸른광명 21 허기용 사무국장

탐방

- 36 빛누리 독서회
- 38 화성 쟁이마을

칼럼

- 40 청소년 문화에 대하여

기획

- 42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
- 48 축제를 찾아서 - 춘천 인형극제
- 50 숨을일꾼을 찾아 - 무대예술가 서두원
- 52 잊혀져 가는 것들 - 우표

제언

- 54 문화도시 광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화정보

- 56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 58 문화소식

만화로 보는 이야기 오리대감

시민 글마당

- 62 어머니의 빛깔 그 하얀 그리움
- 65 발언대 - 공익근무를 하며

기형도의 삶

시인 기형도를 아는가?

29세의 나이로 요절한 시인 기형도가 그의 고향 광명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시인을 사랑하는 광명시민들이 모여 기형도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기념관 건립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인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 대학 교정에서(1982년)

80년대 암울한 시대의 한켠, 광명시 소하동 701-6 자택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안양천 독방길을 걸으며 안개 등의 시를 썼던 시인, 만29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소설속의 주인공처럼 요절한 시인 기형도가 광명의 인물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이미 문단에서 그의 시는 기형도만의 세계가 구축한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의 삶과 시를 아끼는 마니아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우리가 아는 기형도는 어디쯤 있을까?

그의 시 안개속을 그리듯 그의 짧았던 생을 살펴보자

1960년 경기도 용진군 연평리에서 3남4녀 중의 막내로 태어난 기형도는 5살 되던 해 1964년 일가족이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 (현 광명시 소하동 701-6)로 이사회 1989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 광명의 집은 사실상 기형도에게 삶의 모태나 다름이 없다.

5살 되던 해 광명으로 이사, 중3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

시흥초등학교에 입학한 기형도는 상장을 라면박스에 담을 정도로 성적은 늘 최상위권에 있었다. 부친인 기우민씨는 마을 개발에 앞장서고 성실히 농사를 꾸려 집안형편이 유복했으나 1969년 부친이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모친이 생계에 나서서 등 경제적으로 시련을 겪게 된다.

신림중학교에 입학한 기형도는 3년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한 우등생이었다.

기형도가 중학교 3년이던 1975년 바로 위의 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뜨면서 기형도는 이 사건으로 가슴속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되고 이 무렵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중앙고등학교에 진학한 기형도는 백일장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고 1979년 연세대 법대에 입학하면서 교내문학서를 '연세문학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12월 교내신문인 연세춘추에서 제정, 시상하는 박영준문학상에 '영하의 바람'으로 가작 입선하기도 한 기형도는 80년 서울의 봄이라는 시대의 아픔에 동참, 철야농성과 교내시위에 가담하고 교내지에 '노마네 마을의 개를 기고했다가 경찰

K I H Y U N G D O

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연세문화회에서 본격적인 문학수업, 80년대 시대의 아픔을 글로 표현

1981년 7월 안양 인근부대에서 방위로 군복무를 시작한 기형도는 안양의 문학동인 '수리'에 참여, 동인지에 '사강리' 등을 발표하면서 시작에 몰두, 초기작의 대부분을 이때 달고, 습작을 정리했다.

군복무를 마친 기형도는 1983년 3학년 1학기에 복학하면서 그해 12월 교내신문인 연세춘추에서 제정, 시상하는 윤동주문학상에 '식목제'로 당선되고 신춘문예에 응모하여 최종심에 오르내렸다.

졸업전인 1984년 10월 중앙일보사에 입사한 기형도는 1985년 1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로 당선된다.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2월 대학을 졸업한 시인은 신문사에서는 수습후 정치부로 배속되고 이때 '전문가', '늙은사람', '백야', '오래된 서적' 등의 시들을 발표한다.

다음해 문화부로 자리를 옮긴 기형도는 '위험한 가게 1969', '조치원', '집시의 시집', '숲으로 된 성벽' 등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학과 출판에 담당, 관련 인사와 활발한 교류를 한다. 87년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온 기형도는 '여행자', '장밋빛 인생' 등을 발표했고, 88년에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대구, 전남 등지를 홀로 여행하면서 '짧은 여행의 기록'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이 해 문화부에서 편집부로 옮긴 기형도는 '진눈깨비', '죽은 구름', '추억에 대한 경멸', '물속의 사막', '정거장에서의 충고'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1989년 '질투는 나의 힘' 등을 발표하면서 가을에 낼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바빠 준비하던 중 3월 7일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심야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29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시인은 뇌졸중으로 만 29세 생일을 엿새 앞두고 있었다.

기형도는 3월9일 경기도 안성 소재 천주교공원묘지에 묻혔고 대표적 유작인 '입속의 검은잎', '그날', '홀린 사람' 등이 발표되었다.

그해 5월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잎' (문학과 지성사)출간되면서 기형도시인의 시 세계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90년 3월 1주기를 맞아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 (살림출판사)이 출간되었고 1994년 2월 5주기를 맞아 미발표작과 문단 동료, 선후배의 추모작품을 담은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솔출판사)가 출간되었다.

시인은 갔어도 시인이 남긴 시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시인의 짧았던 29년의 삶 가운데 거의 모든 것을 보냈던 광명에서의 삶은 시인이 시를 탄생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 시인 '안개'는 소하동 안양천 강둑을 배경으로 나온 시이며... 시인이 살았던 당시의 주택은 10년 전 매매되면서 지금은 가내공장으로 사용중이나 그 상태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위태스럽다.

죽음과 절망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았고 그것을 이처럼 매혹적인 언어의 성으로 쌓아올렸던 시인은 없었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시인 기형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지났지만 그의 시를 사랑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소하동을 향하고 있다.



▶ 시골에 사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1982년)



▶ 유럽 여행중(1987년)



▶ 「짧은 여행의 기록」을 쓸 당시, 광주 망월동 묘역을 뒤로하고 시인이 직접 찍은 사진(1988년)

<<참고 : 기형도 연보(문학과 지성사)>>

안 개

-기형도-

1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2

이 읍에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잇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군단(軍團)은 샛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죽 위로 걸어나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역(聖域)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셋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죽었다.

바로 걸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걷히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젖은 총신(銃身)을 겨눈다.

상처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3

아침 저녁으로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기형도시인의 누님 기애도씨를 만나 -

분노는 나의 힘!! 시비가 분명한 화끈한 아줌마

■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 이종락 ■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오후 2시, 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요절 시인 기형도의 누님이자 시인 사후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온 기애도씨를 만났다. 시인의 나이가 올해 44세니 얼추 50을 예상하며 만난 누님의 첫인상은 깨끗했고 단아하며 매우 야무져 보였다.

거실과 방벽 등 사방이 책장으로 둘러싸인 아파트는 마치 70년대 운동권 사무실을 방문한 듯한 착각을 주었다.

절반 이상이 시인이 보던 책들이고 그나마 이사하면서 트럭 1대분은 버렸다고 귀뜸해주었다.

안산에서 17년을 살아온 기애도씨는 요즘 근황을 묻는 질문에 “그냥 편하게 산자락의 아파트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 삶을 살고 있다”며 말을 풀어 나갔다.

방학들어 교회 일을 많이 보고 있다는 기씨는 동생 덕에 신학과 국문학 외에 기독교문화학을 공부하고 있다며 사적인 일은 자세히 묻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동생과는 어릴적부터 암호로 언어를 공유

동생으로서 기형도에 대해서 묻자 이복출신의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부친의 기침소리에 모두 웃기를 여미어야 했던 어린시절, 동생이나 형제들 모두 땀내음 나는 노동을 직접체험하면서 공부만큼은 특별한 지원없이 잘 해나왔다고 말했다.

기형도시인이 5살 때부터 살기 시작해 만29세로 요절하기까지 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광명시 소하동 집에 대해서는, 시인의 모친이 주변의 상황에 못이겨 억지로 집을 팔게 된 경우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공론화되는 것을 거부했다.

부친이 직접 벽돌을 찍어서 만든 집이 공장부지로 사용되면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

어린시절 동생과 함께 그들만의 암호로

언어를 공유했기 때문에

기형도의 시속에 담긴 언어의 뜻을 충분히 이해...

”



김태웅

김학선

김종

시 '위협' 家系-1969'

험한 가계

소식과 사진도 함께 봤다며 가슴이 너무 아파 직접 볼 용기가 없다고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어린시절 동생과 함께 그들만의 암호로 언어를 공유했기 때문에 기형도의 시속에 담긴 언어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기애도씨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기형도 파일을 열어 보이며 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바로 윗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나리나리 개나리', 소하2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안양천의 풍경을 그린 '물속의 사막' 등을 설명하면서 기애도씨는 '질투는 나의 힘'이 동생의 시라면 '분노는 나의 힘'이라며 조크를 던지기도 했다.

광명에서 기형도와 시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모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자 '불감청고소원'이라며 건강한 분들이 모여 시에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유족의 입장에서 고마울 따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형도시인이 태어난 웅진군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관보를 보내고 시인의 묘지가 있는 웅인에서도 시비와 관련해 전화가 오고한다며 그래도 기형도와 가장 많은 인연이 배어있는 광명시가 문화적 자산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늦게나마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나서니 기쁘다고 말했다.

동생의 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가장 가슴 아파, 386세대의 열정은 이어져야

기형도시인이 죽고 나서 시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기애도씨는 심지어 밤무대 웨이터룸으로 동생의 이름이 찍힌 것을 보고는 기가 막혔다고 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형도

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시

인의 작품을 갖고 모독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한다는 기애도씨는 동생의 시는 진행형이며 시인이 살았던 386세대의 열정은 계속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누님은 기형도의 시가 2~30년 지나서 묻혀버릴 것이라면 아예 사라지는 것이 낫다며 기형도는 20대의 방황을 통해 세상을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1시간으로 예상했던 인터뷰는 시간을 훨씬 넘겨 3시간을 경과했지만 기형도시인의 누님 기애도씨의 유려한 말솜씨는 거침없이 듣는 이를 자리에 붙들어 매었다.

다음번 기형도 모임에 참석을 요청하자 기애도씨는 그냥 가서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는 인사 자리라면 가겠다고 응낙을 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협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나는 기애도씨는 광명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올 것을 미리 꿈에서 봤다며 오늘의 만남이 늘 기분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함께 우산을 쓰며 아파트 밖까지 배웅을 나온 기애도씨는 이렇게 비오는 날 맨발로 다녀보라는 제안을 던지며 작별의 인사를 마쳤다. 시인의 누님과 대화 세시간이 마치 한 시간처럼 지난 간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다.

시인 기형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시인 기형도가 광명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29세라는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시인의 고향이자 삶의 무대였던 광명시 소하동, 시인의 옛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 본 시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 시인 기형도 기념사업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뜻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폐허화 된 시인의 옛집 복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자칫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먼저 시인의 집을 보존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행정의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시청 공무원 가운데 몇 명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인의 집을 둘러싼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우선 시가 집과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 백재현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했다고 한다.

10여명으로 구성된 기형도 시인 기념관추진 위원회는 시에서 기념관건립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모임의 이름을 기념사업회로 변경했다.

기념관 건립뿐만 아니라 기형도시인과 관련된 제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념사업회 간사를 맡고 있는 광명문화원 이종락 사무국장은 지난 7월28일 기형도시인의 누님인 기애도씨 집을 방문해 인터뷰를 갖고 모임의 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8월7일 기형도 5차 모임에 기애도씨를 초대해 시인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기념사업회는 순수하게 기형도시인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만큼 순수자원봉사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회는 향후 소하동 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행정추진을 옆에서 지원하고 인터넷 및 지역사회내 각종 매체를 이용해 시인을 널리 알리는 작업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월 평생학습원의 나팔꽃콘서트에 시인을 추모,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올해 안에 시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구상을 하고 있다. 사업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내년 4월에는 기형도시인의 기일에 즈음해 추모 문학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시민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기념사업회 추진, 있는 문화자산 버릴까 우려

그러나 사업회가 앞으로 넘어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다.

우선 사업회를 구성하는 인력들이 모두 자원봉사로 자칫 동력이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고 대표를 추대하고 최소한의 재정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8월21일 광명문화원에서는 기념사업회 6차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 기애도씨는 나팔꽃콘서트와 관련해 시인의 후배인 고영범씨와 함께 참석해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모임을 끝낸 추진위원들은 기애도씨와 함께 소하동의 옛집을 방문, 가슴 아프고 벽찬 기억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 옛날 어린시절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너무도 변해버린 옛집의 모습과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누님은 이것저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기념사업회는 우선 9월 나팔꽃 콘서트 행사와 함께 시민들을 상대로 기형도시인을 알리는 작은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철저하게 일로 봉사하는 추진위원과 재정지원 성격의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광명문화원의 이종락 사무국장이 실무간사로 일을 총괄 추진하고, 광명시청의 윤진원, 김형철, 김원근씨 등이 행정 관련 일을 맡아주고 있다. 기동서 전 시의원이 후원, 허기웅 푸른광명21 사무국장이 기획, 홍보를, 양철원 향토사연구위원이 자료수집, 문영희 지역 복지봉사회 사무국장이 총무, 회계 등의 일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강옥영 광명고 교사, 서두원 무대예술가 등이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윤철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다. 외에도 시청의 박상대 비서실장, 신영숙 문화계장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으며 평생학습원의 정석준씨도 후원회원 이상의 봉사를 하고 있다.

광명시의 문화적 자산인 시인 기형도의 무너져가는 옛 집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일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돈 되는 것도 아닌 일에 지역사회의 일꾼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힘을 모으고 있다.

광명시 역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인 기형도를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주기를 많은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만드는 세상에 있는 문화자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말이 그저 말로 끝나도록 뛰어난 시인과 시대를 함께 한 문화도시 광명을 기대해 본다.



참여정부 지역 문화정책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가 지난 7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겨레신문사와 문화연대 공동주최로 열렸다. 그 중 지역문화정책분야 발제를 맡은 임정희 교수의 글을 전문 실어 지역문화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역불평등 해소 및 문화민주주의 확대전략으로서의 지역문화정책 활성화

임정희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연세대 겸임교수)

1. 들어가며

지난해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2002.9.문화연대)에서처럼 여전히 대다수 지자체의 문화정책은 뚜렷한 목표설정과 그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자원과 인프라는 연계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저히 늘고있어 삶의 질과 관련하여 지역적 차원에서도 문화가 중요한 범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행정 조직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순환적인 보직 이동과 지속적인 연수체계 미비로 인하여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매우 커서, 문화를 지역사회 핵심적인 발전 전략으로 삼아 기존틀을 깨고 문화정책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하는 곳도 있지만, 문화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곳도 허다하다. 문화정책의 부재는 지역발전을 여전히 고전적 의미의 경제발전이나 이를 추구하기 위한 산업화와 직결시켜 생각하는 데에서, 그리고 그것이 관주도로 추진됨으로

써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많은 수의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야기되는 지역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입안이나 집행, 평가 등에 다양한 층위의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설득·조정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 마련에도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지역의 문화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에 대한 문화예술포 지원과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간접지원을 펼치면서 지자체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지역문화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로의 무책임한 위임이나 하청이 아닌, 자치와 자립을 위한 공동의 원칙들을 문화정책을 통하여 세워나갈 때 지역문화의 잠재역량이 발굴, 육성되기 때문이다.

2. 지역문화정책의 변화와 성과

2.1. 문민정부의 지역문화정책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 문화부가 출범하면서 비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문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문화발전 10개년 계획”과 부문별 중장기 계획을 통해 ‘문화복지국가’ 개념이 “규제에서 자율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보다 넓은 세계로”라는 기본방향을 지닌 정부의 문화정책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부문별 중장기계획의 하나인 “문화창달 5개년 계획” 속에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가 중요한 문화정책 방향의 하나로 제시됨으로써,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가 현저히 늘어나고, 문화기반시설이 눈에 띄게 확충된 것이 이러한 정책의 성과라고 꼽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부양책 즉, 중앙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역에 보급하거나, 중앙의 수준으로 지역의 문화를 끌어올린다는 일방향적 방식이 지역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적 특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집산된 문화를 나누어주겠다는 단순한 평등과 분배 차원의 문화복지가 지역문화의 입체감을 없애고, 지역문화를 피지배문화나 하위문화의 상황으로 몰리게 한 것이다.

중앙문화의 지역적 편재는 지역문화에 대한 협소하고 안이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여전히 근대와 전통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근대는 중앙의 문화로, 전통은 지역의 전통문화나 민속문화로 이해함으로써 특성있는 지역문화 육성이라는 과제는 전통문화 혹은 민속문화의 보존, 유지로 단순화되었다. 독특한 문화유산의 발굴, 유지, 보존의 과제는 물론 지역문화정책, 아니 문화정책 일반에서도 중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현재화, 즉 문화적 유산의 다양한 해석과 의미화 작업을 통하여 현재를 사는 이들

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이 친밀성에 기초하여 가치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정책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전통문화나 민속문화는 지역민들의 현재적인 정서와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분리되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중앙문화의 획일적인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 지역의 전통문화, 혹은 민속문화의 보존 강화로 직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2. “국민의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국민의 정부”는 “문화의 지방화 시대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대폭 확충하여 지역, 계층, 세대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지역문화정책의 목표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의 확대와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설정하였다. 때마침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각 지역 나름대로의 경제력, 문화력에 경쟁을 불러왔고, 지역마다 수많은 문화행사들을 개최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을 답습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나름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생기기 시작하였고, 중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생겨났다. 2002년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크고 작은 지역축제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새로이 생겨났다.

지방자치제의 시행 못지않게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국민의 정부’ 시대에 획기적으로 늘어난 문화예산이다.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간 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던 문화예산 1%(2001년에는 문화예산 1조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2002년에는 정부예산대비 1.2%) 시대를 공약보다 앞당겨 실천함으로써, 압축적 고도성장 시대에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낙후되어 왔던 문화 영역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실제로 99년에는 정부 총예산이 5% 증액된 데 비해, 문화예산은 45% 증액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문화관광부의 예산 규모가 98년 7574억원에서 2003년 1조 4864억원으로 증가, 5년간 2배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

해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예술 창작 여건 및 인프라의 확충, 문화컨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체육 및 청소년 분야의 인프라 확충 등 문화 예술진흥의 물적 토대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뚜렷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7년 330관이던 공공도서관은 2002년에 이르러 437관으로, 공공박물관은 97년 232관에서 2002년 304관으로, 지방문예회관은 97년 79관에서 2002년 106관으로, 문화의 집은 97년 17개관에서 2002년 107관으로 대폭 확충되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가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확충 못지않게 “국민의 정부” 기간에는 지자체 문화예산도 대폭 증가하였다. 지자체 문화예산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보다 높아서 1999년에는 2.1%, 2000년 3.1%, 그리고 2001년에는 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00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와 대규모 문화행사가 주된 증가요인이었다(2001문화정책백서 참조).

그러나 이 같은 지역문화행사, 지역축제, 지역문화시설들의 양적 확장이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지켜가면서 질적 발전을 수반하였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나 용도, 공간 구획이 지역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것인지, 공간들은 예술장르적 특성에 따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인력과 행정지원인력이 배치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전문기자재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적 차원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운영시간 제고, 공연시의 탁아시설 제공)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투자의 확대만으로 질적인 면에서의 지역문화 진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 부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던 것은 문화산업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1년), 한국게임산업개발원(1999년) 등과 같은 규모있는 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

도 지방문화산업 지원센터(2000년-)가 세워졌다.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불고 있던 지식기반 경제사회-경제행위 근간에 노동력 대신 지식, 문화, 기술을 앞세우는 사회-로의 진입열풍에 한국도 동참한 것이다. “문화산업의 시대” “문화의 세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였던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문화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였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집산된 중앙문화가 전국적으로 수평배분되는 가운데 문화적 자생성을 채 확보하지 못하고, 문화를 단지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경제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의 산업화’ 논리가 시대의 형식적인 문화논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시작한 문화산업에 대한 지역의 표피적인 이해는 지역축제, 지역이벤트행사 등 문화를 활용한 정치적 목적과 결합된 지자체 홍보나 수익효과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

2.3. ‘참여정부’의 지역문화정책

자율과 참여, 분권의 3대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삼은 “참여정부”에서는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이 중앙에 집중된 문화적 권한을 각 지역으로 이전, 배분하여 분권과 균형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역특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광부가 발표한 중기재정 계획에 따르면(2003.5.문광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각 분야의 기본사업과 지속사업 이외에도 문화기반시설과 체육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문화 대폭 육성, 해외문화홍보와 문화외교의 대폭 확충, 문화교육과 문화중심도시 육성 및 문화인프라 지속 확충 건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사업들, 그리고 지방문예진흥위원회 구성과 사업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중기재정 계획과 별도로 2003년 4월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자율·참여·분권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방식을 개선/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수의 중앙·지방간 격차 해소/ 문화도시 육성 및 문화인프라 지속 확충/ 지방의 문화산업

을 특화 육성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추진하며, 지방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지방 분권화 및 균형의 실현/지역개발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지역균형 발전 및 문화시설의 균점화를 위해 탄력적인 국고보조제도 시행/문화예술 지원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평가시스템의 제도화 등을 쟁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요적으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양적으로 증가된 지역의 문화시설, 문화행사 그리고 가시적으로 개선된 창작 여건 등을 균형성, 적정성, 합리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재조직함으로써 지역특수성과 지역정체성이 갖든 지역문화 활성화로 질적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변화의지를 읽을 수 있는 증액사업으로서 문화중심도시 육성/지방문예진흥위원회 사업 지원/지역미디어센터 건설 등이 지역문화정책과 관련된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역문화정책 흐름은 중앙문화의 지역적 보급을 강조해 온 “문화의 민주화”를 부분문화를 격려하는 “문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보다 지역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전제되고 있다. 즉, 지자체들이 지역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지닌다는 인식이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정책과 문화교육, 지역 조사와 발전(R&D)에 관한 정책 간의 유기적 연결 필요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로서 “지역활성화”와 “삶의 질”에 대한 좀더 넓은 정의들의 필요, 그리고 문화정책의 공공성이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문화적 계획”의 수립 등이 광범위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문화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열린 문화행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프로그램과 제도의 개발보급을 공유·활용케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기관과 기관, 단체간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케 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정책적 참여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수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타 부처 또는 지자체와의 업무조정과 통합이 얼마나 가능할지, 여전히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부산

물로 문화를 바라보는 정부 내에서 여타 분야에 비해 특히 복잡성과 다양성이 얹혀 있는 문화분야의 특수성을 얼마나 견인하고 문화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에 따라 성과와 파장효과는 유동적이다.

3. 지역문화정책의 기본 전제 :

문화적 기본권 인정과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의 개념은 지리적·행정적 경계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사회적·문화적 동질성, 합의, 자조 또는 다른 공동행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은 인위적인 행정구역의 재편과 단기간의 특정지역으로의 집중적인 인구이동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구역의 성립 등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에 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리적·행정적 성격과 더불어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지역문화정책에서도 일상 생활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권역 중심의 지역을 기본 단위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가 생활문화/일상문화의 활성화이다. 지역문화정책은 이러한 생활권역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시행을 위한 행정 단위의 지역개념도 주민자치의 기초단위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정책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여건, 생활환경, 생활양식들을 마련하는 것이며, 지역문화의 자치화·자립화, 지역문화의 개성화·특성화, 지역문화의 다양화·다원화가 지역문화정책의 성과로 드러나야 한다.

지역문화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토대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문화적 기본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는데, ‘자유권으로서의 문화에 관한 권리’와 ‘사회

권으로서의 문화에 관한 권리'가 그것이다. 자유권적 문화권은 오늘날 대체로 헌법에 규정되고 있으나, 사회권적 문화권은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에서는 특히 생활권에 기초한 사회권적 문화권이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①

자유권적 문화권은 문화적 표현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거부하고, 국민의 문화영역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문화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역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이러한 자유권은 "어떠한 문화를 어떻게 향수 또는 창조하는가"하는 문제가 종교·사상·학문과 더불어 모든 개개인의 내면에 좀더 깊게 관계되는 일이며, 국가권력이 이에 개입·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적 활동을 다채로운 인간활동의 일종으로 간주함으로써 '행복추구의 권리',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에서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문화예술의 자유가 뜻하는 권리내용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국가가 그 내용이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적어도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비동일화원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로부터의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예술 활동이 가치 영역을 구획하며, 문화적 생활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화예술 진흥을 촉진시켜야 한다. 문화예술적 표현은 국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에 따라 더욱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은 대체로 생존권의 차원에서 이야기된다. 생존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최소한도의 생활수요'를 규정하는 구체적 판단은 문화의 발달, 국민경제

의 진전과 관련하여 다수의 불확정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이 생존권은 경제생활면에 한정되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오늘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단순히 경제적인 생활보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이상, 생존권의 이해는 보다 확장된 의미의 생활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확립되어온 고전적인 생존권 개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사회에서의 생활환경 변화를 '시민의 본원적인 살 권리'에 적극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즉 현대사회의 인간 생존은 자원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생산과정에서의 존재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존재방식에 관한 발언권을 요구하고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활권의 이념은 대량생산-대량소비에 의한 현대사회의 메카니즘이 내포하는 여러 모순에 저항하고, 억압을 탈피하기 위한 시민적 권리를 요구한다. 특히 생활·환경파괴에 대항하는 생명·건강에 대한 생활권, 시민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공공정비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상호조정과 창작적 능력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요구된다.

생활권은 환경권, 행정예의 참여권, 알 권리 등 시민적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색되어 현대적 시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 생활권은 문화적 권리와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첫째, 인간다운 삶의 존재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로서 생존권을 생활권으로 발전시켰다는 점, 둘째, 사회 전과정에서의 일방적인 이윤추구 메카니즘을 공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시민적 권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생활권의 내용이 지역사회의 자치적이면서 공동적인 창조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권리의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파편적인 공리성, 실용성, 획일성, 편리성 등 현대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고, 각 시민들의 생

활원리와 삶의 보람, 정체성 모색에 기초하여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려는 문화적 생존 노력이야말로 지역문화의 토대이다.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지역문화라면,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역문화는 지속되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문화는 자치적이고 자립적인, 개성적이고 특성적인, 다원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현재적으로 보여준다. 지역문화는 전통문화나 민속문화를 계승,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동시대적으로 생활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문화이다. 지역문화를 주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권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며,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으로 이해할 때, 지역문화정책은 이러한 지역문화의 본성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생활문화/일상문화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적 담론들이 생산되도록 건전한 토대들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놓여야 한다.

4. 지역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정책 제언

지역문화의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적 고려가 배제된 지역공공문화기반시설들
- 지속적인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의 부재 vs 과도한 시설투자
- 전문인력/행정인력의 부족
- 관례적 지원의 정착
-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치우친 지역문화정책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 문화적 수요와 괴리된 과시적, 소모적 문화행사 남발
- 평가제도의 미정착, 지원대상의 형평성 미흡
-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부재
- 관주도의 지역축제, 대형 지역문화행사의 무차별성

4.1. 지역문화 개념의 재정립과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지역문화정책 업무분장

①

지리적·행정적 경계에 기초한 지역문화에서 생활권·문화권역 중심의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문화로

그동안 지역문화정책은 중앙과 지역간의 문화적 격차 해소,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으로부터 최근에는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 기반조성으로 확대되어 왔다. 문화의 중앙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차원의 문화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문화정책이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주도형 문화분산 정책에 치우쳐왔다.

한 편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문화수요와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의 자율적 발전을 측면 지원하기보다는 지역문화를 정책적 지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고 직접 시행을 주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의 개발/시행은 뒤로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중앙문화를 모방/답습하는 데 급급하였던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자치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②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연계 속에서 역할 조정 필요
지역문화의 실질적 담당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민과 자치단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문화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공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취지와 달리 지역의 자생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중앙정부의 선도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적 업무분장을 통하여 독립성과 상호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정책 입안,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선도산업

육성, 기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 역할을 맡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주민복지 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관광상품 개발, 지역의 문화발전과 경제발전의 피드백 효과 제고를 위한 기반과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4.2. 지역문화 관련 조직의 개편 및 기능조정

1

문화정책국 산하에 '지역문화과'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정책을 기획, 조정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 지원, 역할분담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정책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사/연구, 법/제도의 정비 업무를 비롯하여 지역문화와 관련된 여러 업무들을 네트워크 하고 조정, 지원하는 업무는 상시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정책국 산하에 '지역문화과'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지역문화행정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사업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행정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문화정책조정관을 광역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술국내 '전통지역문화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업무는 독립시키고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태백산 눈꽃 축제▶

지역문화과에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연구조사 실시
-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조례 제?개정
-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원
- ... 지역의 문화발전과 경제발전의 피드백 효과 제고를 위한 기반과 정책 수립
- ... 지역문화시설 건립과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다양한 전제 마련
- ...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평가의 다원화와 평가의 반영
- ... 지역문화단체의 인력 전문화 교육(지방대학과의 연계)마련, 지역문화자원의 전문화 작업
- ... 지역 문화관련 공무원들의 문화행정전문교육 강화(평생교육의 도입)
- ... 행정구역 내 그리고 인접 지역간 문화시설, 문화단체 네트워크 강화
- ... 공식적인 문화정책과 문화진흥 외에 비공식적 문화활동에 대한 인정과 지원 방안
- ... 지역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재단 설치 지원 등
- ... 열린 문화행정시스템의 구축과 프로그램 및 제도의 공유 및 활용의 정착
- ... 지자체의 문화업무(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반영, 지역문화의 정책체성 반영의 수용에 대한)에 대한 감리

2

문화정책국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지역문화위원회'를 설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과 지도, 정보와 조언, 재정적 지원, 연구와 실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정책국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지역문화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문광부차관, 지역문화과장, 문예진흥원(합의제 행정기구인 문예진흥위원회로 이행 중)지역문화담당,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대표, 지역문화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행정조정 기

능을 한다. 분권화에 따른 업무 조정, 문화권별 발전에 지자체 간의 업무 협조 유도, 문광부와 타부처 간의 협조체제 구축, 세제·법규 정비를 통하여 문화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재정지원 기능으로는 문예진흥 기금 및 문광부의 지역문화 관련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문화기반시설 및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문예진흥원(차후 문예진흥위원회) 및 문광부 지역 관련 예산을 각 지역문화재단에 배분하여 여기에서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게 지역의 문화시설, 단체, 행사,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하며 이를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 문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재정지원 규모에 반영토록 한다.

4.3. 지방자치단체 내 문화 기구들의 위상 강화와 재편성

① 광역자치단체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문화전담 부서를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10개로서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생활체육, 청소년 업무 전부 또는 일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문화관련 부서가 과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가 문화전담 부서를 국 단위로 설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화국 아래에는 각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예술진흥과 / 생활문화과 / 생활체육과 / 문화유산과 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예술기금관리조례 등이 제정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

현재 시, 군, 구에서 과/실 단위의 문화전담 부서가 구성되어 있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각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전담 부서를 과/실 단위로 설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화전담 부서는 생활문화적인 관점에서 예술, 문화산업, 여가, 관광, 오락 및 체육의 제 분야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가 제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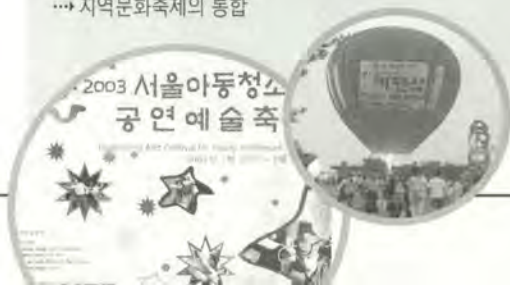
어 있는 사례를 발전시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지역문화위원회”를 두어 지역의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도, 정보와 조언, 재정적 지원, 연구와 실행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의 역할 조정을 전제로 지역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지역문화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현장의 살아있는 문화 육성
-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발전기금의 설치와 이에 따른 조례 제정
- 지역의 문화재정 확장
- 지역문화 정보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지방대학과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정책수립, 경영진단, 인력교육의 확대
- 구역 내 문화시설, 인력,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정책적 유도
- 문화시설 조성 전에 주변 및 이용자 요구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실시
- 시설 투자 외에 자료구입, 프로그램 운영의 예산 확보
- 문화시설 건립 또는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조사연구, 사전기획과정에 대한 기획설계비용의 배치
-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체제 도입과 반영
- 문화전문인력, 문화행정지원인력의 확충
- 문화시설 등의 운영에 주민 및 문화단체의 참여 상시화
- 문화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토론 상시화, 주민들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강화
-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강화와 지속적 연계
- 일화성, 소모성 이벤트적 지역문화행사의 지양/ 관 주도 지역문화행사의 민간자율화
- 지역문화축제의 통합



다시보는 광명유적

광명의 옛 사찰지를 찾아서



■ 광명문화원 향토 연구 위원 | 양철원 ■

광명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옛 시흥군 서면과 남면의 일부 지역이 분리되어 시로 승격한 곳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상하다 할 정도로 불교유적지가 알려지지 않았다.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옛 지리지를 찾아봐도 시흥 지역의 다른 불교유적은 나와 있어도 광명 지역의 불교유적은 나와 있지 않다. 인근의 안양만 해도 신라시기의 절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명문이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로 보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막사를 비롯한 다수의 불교유적이 남아 있다. 그에 비해 가까운 광명 지역에 단 한 곳의 불교유적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지역에는 노온사(老溫寺)라고 하는 마을 지명까지 있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지역 향토사에 미궁인 점이다. 필자는 최근 불교유적이 없는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불교유적에 관한 내용을 탐구하여 보았다.

미흡하나마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사실들은 광명지역 불교유적에 대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는 통일신라시기부터 고려때까지 국교로서 우리 민족의 심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 성리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사류에 의해 불교는 배척받게 되었고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 하지만 천년에 걸친 불교의 생명력은 민중의 심성에 깊이 남아 완전히 도태시킬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유적이 광명에 없다는 것은 과거 성리학의 영향력이 강성한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조사해 보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성리학으로 무장한 양반사회가 강성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불교에 관련한 지명 조사와 시민 탐문을 통한 제보를 수집하였다.

먼저 지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노온사동과 일직동의 절골과 학운동의 장절리라는 이름이 조사되었고 탐문결과 구름산 천연약수터 아래의 절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노온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 1990년도에 수행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안산간 건설에 정지 지표조사서」(충남대학교)를 입수하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온신초등학교 인근의 사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노온사동 인근의 두 곳에 대한 조사가 들어 있었다.

지금은 4차선의 넓은 도로가 뚫려 있지만 당시만해

도 1차선의 작은 길만이 있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자기, 토기, 기와편이 흩어져 있고 지세로 보



산중턱에 암자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계단식의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석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작은 치석(治石)은 일부 있으며

가을쯤에 낙엽이 진 후 재조사를 해보면 다른 유구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아 계단식 사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의 노온사동에 대한 조사 결과 마을 안쪽 산록에 3개의 건물지와 기와, 토기와 자기, 장대석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필자는 지난 97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노온사동 일대를 조사하였는데 97년도에는 그나마 위 보고서와 비슷하게 일부 유구를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마을 전반에 걸친 신축과 변화로 인해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다. 결국 우리는 우리 지역의 이름이 남아 있는 뿌리 같은 곳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보고서에 의하면 노온사는 라말여초와 려말선초에 존재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노온사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본다.

일직동 서독산 자락에는 절굴(절굴)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약수터가 조성되어 있다. 이 곳은 효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이후원(1598-1660)이 죽은 후 묘를 쓰고 그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 절을 지었으나 이장을 한 후 폐사되었다 한다. 경내에 있던 돌탑은 해방 후 마을 주민들이 각 가정에 우물을 파면서 가져갔다는 말이 전한다. 조선 시기 가문사찰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학 온동의 장절리는 과거에는 마을이 길게 나뉘어져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이 전하였으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유적을 발견하였다.

마을 안쪽 웃장절리에서 동창골로 넘어가는 개간지에서 절터로 추정되는 곳과 다수의 기와편, 백자편을 발견하였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건물이 있었던 것은 모르나 개간을 하다보면 종종 깨진 그릇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한다. 앞으로 이곳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져 만약 절터 같은 유적이 발굴되면 마을 이름인 장절리의 절(切)이라는 의미는 절(寺)의 의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름산 정상부에서 서쪽 방향으로 내려와 영회

원 방향 10여m 아래에 절터 추정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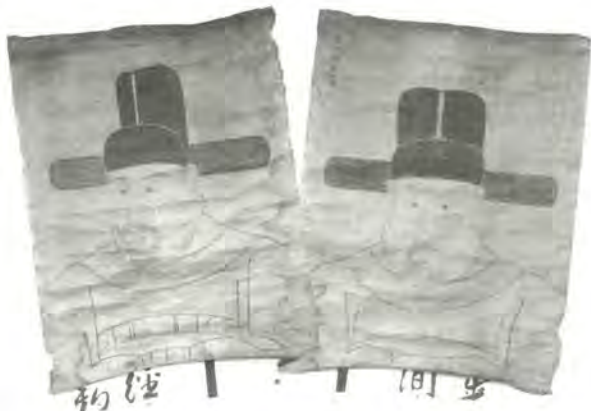
그곳은 능말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라 조사하던 중 발견하였는데 이 지명 역시 절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도 직접 절이 있었던 것은 못 봤고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한다.

또한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절골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 필자의 조사 소견으로는 산중턱에 암자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계단식의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석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작은 치석(治石)은 일부 있으며 가을쯤에 낙엽이 진 후 재조사를 해보면 다른 유구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소하2동에서 구름산 정상부로 올라가는 현재의 베드민턴장에도 절이 있었다고 전하며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몇 해 전 베드민턴장 조성시에 그릇이 온전한 모습으로 출토되었다고 하나 소재를 확인할 길 없었다. 마을에 전하는 말로는 절이 한때는 융성했으나 어느날 절에 벼룩이 들끓어 승려들이 절을 떠나고 폐사되었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다른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는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나온 이야기로 추정되며 지역사회에서 주류세력이 교체되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보여진다. 현재 소하동은 베드민턴장 공사와 빈번한 사람들의 왕래로 인해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조사를 통해 보았을 때 여러 시기에 걸쳐 불교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200여 년 동안에는 별다른 불교의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위에 언급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진다. 특히 노온사동사지와 절굴에 대한 조사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권유와 안동 권씨



■ 광명문화원 향토사료조사위원 | 양철원 ■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서독산 자락 아래 마을은 양지편이라고 한다. 이 곳은 몇 해전만 하더라도 길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으나 광명역 진입로를 만들면서 이제는 큰 길가 마을이 되었다. 이 마을에 뒷산을 올라가면 옛 묘가 여럿 보인다.

묘역은 일찍이 이 지역에 세거하던 안동 권씨의 것이다. 산중턱을 따라 조성된 묘역은 가지런한 문인석과 상석 등의 호위를 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모셔져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권형(權?, 541-1605)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558년 진사시에 합격한 후 임진왜란 시에는 선조를 호종하여 행재소로 향하였다. 훗날에는 세자시강원필선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권형은 효성이 지극하고 우정이 돈독한 것으로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후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이 묘를 지나 광명 최남단 안서초등학교 옆 군부대안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묘소가 있다.

오래전부터 군부대가 자리 잡은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통제 지역에 있는 이 묘소는 권형의 현손인 권유(權愈, 1633-1704)의 묘가 있다.

권유는 조선 후기인 현종, 숙종조에 활약하던 인물로 소위 “남인 최후의 대제학, 문형(文衡)”으로 불리던 이이다. 숙종조는 당쟁의 격화로 남인과 서인간의 정권교

체가 숨가쁘게 일어나던 시기이다.

1675년(숙종 1년) 갑인환국이 단행되어 인조반정 이후 40여 년간 집권을 해오던 서인세력은 일시에 몰려나고 남인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허적, 허목, 윤후, 권대운, 민암, 오시수, 이하진등의 남인이 대거 등용되었다. 권유는 1665년에 문과 급제후 여러 벼슬을 거쳐 갑인환국 이후인 1675년에는 영남지방의 어사로 파견되었으며 후에 서천군수로 올랐다.

그러나 1680(숙종6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은 다시 실각하게 된다. 당시 영의정 허적을 비롯한 우의정 권대운등 남인은 일거에 몰락하게 된다. 권유 또한 서인세력이 집권한 이 시기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10년을 유지해오던 서인정권은 1689년(숙종 15년)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후에 경종)의 세자 책봉 문제에 반대를 하다 숙종의 미움을 받아 몰락하고 만다. 이 사건을 기사환국이라 한다. 다시 몰려났던 권대운, 목내선, 김덕원이 삼정승에 오른다. 권유와 관련하여 주목할 인물인 권대운, 김덕원이 정권의 담당자로 전면에 부상한 것이다. 권유는 이 시기에 대사간 예문관 대제학 등 정부요직을 맡았다.

일찍이 대제학을 추천할 때 그와 이서우 두 사람을 놓고 열른 선택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명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운을 내어 재주를 시험하자 즉석에서 시를 지어 좌



중을 놀라게 하여 그가 대제학에 올랐다고 한다. 옛 글을 즐기고 청빈했으며 시문에 능하여 『인경왕후지』를 저술하였고 태조부터 현종까지 역대 임금의 글을 모은 열성어제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1694년 갑술옥사로 남인이 재차 몰락하면서 실각하여 진보지방에 귀양가게 된다. 숙종 23년(1697년)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재기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평소의 신망으로 숙종 28년(1702년) 원로대신들의 반열인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2년 후 72세로 죽었다. 갑술옥사로 남인은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하였고 이런 연유로 권유는 남인 최후의 대제학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 현재 광명에 그의 묘소와 안동 권씨의 묘소는 많이 알려진 바가 적는데 그 이유는 갑술옥사로 인해 권유의 후손들이 화를 피해 뿔뿔이 흩어지게 된 바에 연유한다. 이 와중에 그의 문집 『하계집』 역시 이름만 전하고 있다. 그의 글재주가 뛰어나서 당대의 대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었을 때 문집이 발견되면 그의 훌륭한 문장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당대의 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나 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최근 공주지방으로 피신했던 권유의 후손으로 종손인 권처흥씨가 아산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정 두 점의 밑그림과 호패가 알려져서 광명을 근거지로 하며 한 시대의 문형으로 활약하던 권유에 대해서 재삼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권유의 존재 의미는 단지 광명의 인물로서만이 아니라 과거에 시흥지방에 일정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소위 기호남인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인은 한때는 집권세력으로 활약했으나 1694년 갑술옥사로 몰락하였다. 따라서 그들에 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런 이유가 그동안 기호 남인에 대한 연구가 적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광명지역은 옛 시흥에 속했던 곳으로 한성에서 인접한 곳이다. 이런 중요한 지역에 세거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분석은 지역향토사 복원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면에서 광명의 대표적인 인물인 오리 이원익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리 이원익은 당색은 적었으나 일반적으로 남인의 인물로 여겨지며 그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이원익의 손녀사위인 허목은 당대의 남인의 영수로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필적했던 인물이다. 이원익 사후 배향 서원인 충현서원을 건립하는 과정과 오리영우를 조성하는 시기는 남인이 집권한 시기에 남인세력의 힘이 집중되어 이루어진 역사(役事)이다. 참가한 인물을 봐도 허목, 이관징, 김덕원 등과 남인과 가까운 소론의 이경석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유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남인 우의정 김덕원의 존재이다. 김덕원은 훗날 충현서원의 이건과정에도 깊이 개입한 인물로 남인의 문화적 후원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또한 권유와 종씨인 권대운은 남인 집권시기에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로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사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강경 남인이었다. 인근의 시흥시 도창동에 그의 묘소가 전하며 이 지역이 근거지였다. 더불어 오류동에는 선조의 공주인 정선옹주 묘가 있는데 정선옹주는 안동 권씨 집안의 권대임에게 시집을 와서 그곳에 묻히게 된 것이다. 이를 유추해보면 옛 시흥지역에는 광범위한 기호남인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유는 이원익의 문집인 『오리집』을 편찬할 때 서문을 썼는데 이 때가 대제학에 오른 1691년이다. 아마도 면면히 이어온 남인의 학자이기에 편찬자인 이원익의 종손 상현이 서문을 부탁하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그동안 광명지역에는 특정한 정치세력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권유의 존재와 그 가문이 지역에 산재한 사실을 통해 분석해보면 연구가 더욱 진행되고 자료가 발굴될수록 향토사속에 흐르는 기호남인의 면모를 찾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잊혀진 인물 권유의 존재를 알리면서 한 인간의 모습을 뛰어넘어 향토사 복원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광명에서 시작되는 지역통화 -

지역통화의 실험과 도전이 광명에서 움트고 있다...

푸른광명21과 평생학습원은 지난 4월 지역통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시작했다.

지역통화를 알기 위한 몇 차례 모임을 가진 단체 및 기관 실무자들은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동경 시 등을 방문해 지역통화 사례들을 공부하고 체험했다.

가칭 지역통화추진협의회는 7월 25일 평생학습원에서 일본연수 보고회를 갖고 8월 19일 21개 단체가 참여한 지역통화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협의회는 이날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선정했고 8월22일 소위원회는 교육, 평생 학습축제, 향후 사업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통화는 기존의 화폐시스템인 법정통화가 갖는 문제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시스템으로 세계 곳곳의 수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통화는 지역주민과 상점, 자치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호부조적 복지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IMF사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통화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약 20여 곳에서 지역통화가 시행되고 있다.

실패한 경우도 있고 기대보다 힘들게 지역통화를 뿌리내리기 중이다.

나누고 베풀며 더불어 사는 삶의 철학이 바탕에 깔릴 때 지역통화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광명의 지역통화는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역통화가 광명시민들의 삶 한 운데 둥지 트는 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가 섞인 가슴으로 광명지역통화를 지켜보고 있다.



지역통화 ‘피너츠’를 통해 본 일본 지역통화 연수 이야기 하나.

■ 광명시민신문 기자 | 강찬호 ■

일본 지역통화 연수 첫날인 16일이다. 숙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반정도 이동을 했다. 치바현 니치시바 지역에 위치한 치바대학에 도착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치바대학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띈다. 연수단 일행은 준비된 장소로 이동한다. 세,네 명의 일본인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 통역과 현지 안내를 맡은 <지역통화 입문서>의 역자 전정근씨가 무라야마씨를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다. 소개를 받은 무라야마씨는 도시계획가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피너츠서포트센터(이하 서포트센터) 부대표다. 무라야마씨는 서포트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쿠마씨를 소개한다. 그리고 마도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너츠 통화를 처음으로 도입한 카이호(62)씨를 소개한다. 간단하게 소개를 마친 무라야마씨는 준비해 온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피너츠를 소개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아미고’

먼저 소개를 받은 사쿠마씨가 피너츠 통화의 사용방식을 설명한다. “무라야마씨가 스파게티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가정합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점심값이 1,000엔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서는 피너츠 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 정가의 10%라고 합니다. 따라서 1천엔 중 100엔을 피너츠 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라야마 씨는 음식값 천엔 중 900엔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엔은 피너츠로 지급합니다. 즉 피너츠 통장에 기입

을 합니다. 우선 음식점을 이용한 날의 날짜를 맨 왼쪽에 씁니다. 무라야마씨가 할인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통장-항목 아래 100엔을 표시 합니다. 반면 가게 주인은 서비스를 할인해서 제공을 한 것이므로 +항목 아래 100엔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 통장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미고’라고 하면서 악수를 나눕니다.” 이렇게 거래는 종료가 된다. ‘아미고’는 스페인말로 ‘우리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 졌음을 상징한다. 지역통화를 통해 친구가 된 것이다.

피너츠를 이용, 직접 상점에서 점심 식사 체험

연수단 일행은 피너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진 후, 대학 주변에 있는 상점에 가서 직접 지역통화를 사용하였다. 주 메뉴를 정하고, 각각 해당 가게로 팀을 짜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식사를 한 후 오전에 견네받은 피너츠 통화를 이용하였다. 할인율은 5% 정도였다. 한 사람씩 가게 주인과 지역통화 통장을 주고받으며, 기입을 하고, 사인을 한다. 그리고 ‘아미고’ 인사를 나눈다. 상점에는 피너츠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가게 입구

혹은 상점 안에 부착이 돼있다. 오전에 설명을 듣고, 일행이 식당을 이용하는 전 과정은 지역방송인 치바TV에서 동행 취재를 하기도 하였다. 또 일본 한 경제일간지 기자도 연수단을 취재해 다음날 보도를 하기도 했다. 지역통화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 그도 그럴 것이 피너츠 통화는 일본 170여개 지역통화 중 일정정도 규모를 갖추면서 진행이 되는 사례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한담을 나누는 시간에 이병곤 교수가 '왜 지역통화 이름으로 피너츠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해 듣고서 설명을 해준다. 이 지역 특산물인 땅콩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상징화하고 알리는 것이다. 또 지역 정치인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데, 이때 땅콩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형성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한다.

**처음엔 꺼렸다.
그러나 점차 확대.....**

오후 일정은 다시 치바대학 오전 강의실에서 계속 이어졌다. 무라야마

씨가 지역통화에 대해 본격적인 강의를 했다. 왜 지역통화가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했다. 그리고 피너츠 통화의 경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99년 처음 우표형 피너츠 통화로 시작을 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상점들도 이러한 지역통화에 대한 이해가 적어, 참여를 꺼렸다. 그러나 2000년3월 마도카 미용실에서 처음 피너츠 사용에 참여를 했다. 이 미용실의 대표인 카이호 씨의 남다른 의지가 있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혼자라도 시작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카이호씨는 이 지역 상점가의 대표이기도 했다. 무라야마 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함께 공부를 하기도 했다. 카이호 씨는 "무라야마 씨의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겠다. 이웃간에 친구를 만들겠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관계를 만들자. 돈이 아닌 피너츠로 해보자."라며 당시 시작동기를 설명한다. 또 카이호 씨는 마을 상황을 설명을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끼리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마을도 지저분했다. 가로변에는 꽃이 없었다. 웃으며 인사하는 관계 만

들고 싶었다."

**피너츠 통해 지역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카이호 씨는 피너츠 확대를 위해 열심히 활동을 했다. 마도카 미용실에 먼저 꽃을 심었다. 그리고 가맹 회원점에도 꽃을 심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러면서 상점 주변들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웃간에 활력이 생겼다. 가게 매상도 늘었다. 상점가가 주최하는 7월 여름축제도 만들어졌다. 상점 주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가형 축제'다. 전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축제 진행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에게 피너츠를 지급한다. 또 축제 날 가게를 비우게 되는 상점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대신하는데, 이때 자원봉사자도 피너츠를 사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동네시장이 열린다. 이 때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참여를 한다. 10%를 피너츠 통화로 거래할 수 있다.

피너츠 통화는 이제 회원이 700여명으로 늘었다. 상점수도 50여개다. 무라야마 씨는 향후에 50만명을 회원

"지역통화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지역통화 운영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목적 이외의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감가방식을 추천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치바현의 인구가 600만 명이다. 약 10%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IC카드도 도입을 할 계획이다. 핸드폰에도 적용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통화로 시작해서 6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스위스 비아뱅크(WIR BANK)처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마켓과 별도로
지역 안에 재화와 서비스
순환 시스템 만들어야.**

그리고 무라야마 씨는 지역통화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것은 현재의 경제 구조가 글로벌 마켓으로 형성이 돼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자금은 계속해서 선진국만 배부르게 함으로

써, 빈부격차를 계속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그 중 단지 6명이 세계 부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처럼 선진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면 안 되겠구나. 세계화된 시장과 별도로 지역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피너츠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역통화가 지역경제의 순환유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인다. “지역통화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지역통화 운영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목적 이외의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감가방식을 추천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카이호 씨도 마무리 말로 덧붙인다. “지역통화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장사꾼으로 살아왔는데, 지역통화를 하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7백 규모의 지역통화 지금도 운영에 벅차다. 그러나 7백 명으로 우리 지역은 살기 좋은 마을로 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용실 운영보다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한다. 자그마한 키에 강단 있게 생긴 카이호 씨는 62세다. 그런데 시종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다. 확신이 넘친다. 무라야마 씨의 통찰과 제안 그리고 카이호 씨의 열정. 그에 동조하는 마을 주민들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일본 연수는 지역통화 이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연수일정은 6월 15일(일)부터 6월 22일(일). 가고 오는 날을 뺀다면 실제 연수 일정은 6일이다. 동경을 중심으로 7개 지역통화 현장을 방문하였다. 시민사회 유형, 지방정부 유형, 복지분야 유형 등이다. 기본원리는 같다. 이런 원리를 지역의 여건에 맞게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지역통화를 만들어 가는 이들의 의도에 따라, 그 접근방식이나 운영의 형태가 조금씩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픈 마음이 배어 있다.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을 맺으려는 현실적인 접근 역시 놓치지 않고 있다. 7개 지역 지역통화 현장에서 만난 이들의 공통 주문이다.

지역통화는 새로움이다. 새로운 흐름이다. 새로운 인간관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실험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수사가 붙는 이유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기치로 서서히 닳을 올리는 광명지역통화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지역통화



■ 광명문화의집 운영부장 | 심평섭 ■

요즘 “지역통화”, “교육통화” 하는 말들이 우리 지역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는 ‘돈’과 관련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한다.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서로간의 신뢰와 사랑도 접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법정통화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화(老化)되지도 않고, 이자까지 있다 보니,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파산이나 도태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노정된 가운데 “지역통화”라는 말을 접하고 있는데, 지역통화는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통화시스템으로 지금까지의 법정통화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호간 교류적 통화(Community Currency)라고 할 수 있다.

광명시민 모두가 법정통화 외에 지역통화를 함께 통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2004년 8월 22일 밤 12시경에 다량의 지역통화를 소유한 평생학습원 원장이 상업지구를 지나던 중 괴한을 만나 다량의 지역통화를 빼앗기자 괴한에게 그동안 쌓아놓은 플러스(+)통화를 털어버리게 됐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자, 당혹한 괴한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요’ 하며 대화가 열리면서 새로운 지역통화 회원을 모집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후에 괴한은 나도 광명으로 이사 왔다고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평생학습원에서

지

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지역통화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출처 : 광명방송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명지역에서도 지역통화를 위한 광명지역통화추진협의회(가칭) 1차회의(2003년 8월)를 기점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역통화의 특성상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기존의 법정통화개념을 깨고 더 나아가서 지역통화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다. 단순히 통화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커뮤니티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역통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이 인간다운 관계’로의 회복을 이루는데 지역통화가 매개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성공은 지속성에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닫혀진 입과 마음을 열어서 벽을 깨야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는 공동체 회복운동이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어디 쉬운 일이었는가? 그리고 지역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4,000여 곳에서 실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많은 곳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제 광명지역에서 지역통화가 힘들게 첫걸음을 딛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기대한다.

본게도에 들어오긴 했으나 지금은 월길도 제대로 닦여있지 않고, 가고자 하는 역도 불분명하고, 타고 가야할 열차도 없다. 그리고 열차에 한



게 탈 사람도 다음 역에서는 누구를 태울지도 막연한 상황이다. 과연 열차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조차도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을 줄 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20여개의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로,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다. 가다가 발생하는 장애물들이 많을 것이다. 기관들 간, 시민 개인 간,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 등 다양한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둘째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험적인 실시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지역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연구와 어떤 유형의 지역통화가 적당한지,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느 기간을 실험단계로 둘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느 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해 볼 것인지 등의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셋째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 최소 5년 이상을 내다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적인 조율도 함께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넷째로, 지역통화를 움직이는 독립된 사무국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사무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시민들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독립된 사무국을 통한 중립성이 필요하다. 지역통화의 뜻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누구나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의 장기적인 성향을 고려했을 때에도 독립적인 사무국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의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지 않거나, 지역통화의 유익함을 체감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자발적 참여는 힘이 들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예로부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 반만 더 하면 된다는 것인데, 우리지역에서 지역통화가 통용될 것이 확실시 되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 1/2은 이론 셈이 된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법정통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지역통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빈번하게 사용해 온 사람에 의해서 주류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들이 중심이된 상생(相生)을 꿈꾸면서 지역통화의 서광을 보고 있다.



▶▶ 지역통화 연수 보고회



▶▶ 일본 지역통화 연수 '피너츠' 현장 체험

기획시리즈 1

광명의 동 문화를 찾아서(광명1동에서 4동까지)

■ 광명시민신문 기자 | 강찬호 ■

동이라는 행정 구역은 흔히들 생활권 구역이라고 부른다.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면 통, 반 단위가 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일어나는 구역일 수 있다. 동네라는 개념이 미치는 행정적인 범위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동의 단위라고 편의상 규정하자. 그리고 문화를 이야기 하자. 동의 문화를. 주민들의 삶의 환경 안에서 즉, 생활권 영역에서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까운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 동이라는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형성하는 특성 있는 문화는 있는가? 광명시는 18개 동이 있다. 편의상 광명1동에서 4동, 광명5동에서 7동, 철산1동에서 4동, 하안1동에서 4동 그리고 소하1,2동과 학온동. 이렇게 5개동으로 나누어 해당 동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해당 동의 문화적 내용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에 근거해서 각 동의 문화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필자의 눈에 비치는 동의 문화적 내용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첫 시작이 광명1동에서4동이다. 비교의 글이 아니고, 공공적인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 문화기반시설이나 문화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광명1동에서 4동까지의 문화적 지형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것은 문화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해가는 문화적 측면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지 않다. 주로 주택밀집 지역이다. 그리고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있다. 공통적으로 '주차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한다. 주택밀집지역이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이동이 적은 편이고, 비교적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 대면 접촉에 의한 정(情) 문화는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이 조직화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아닌 것 같다. 문화기반 시설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의존하는 양상이다. 달리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광명3동에 들어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완공이 되고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면, 시설 측면에서는 광명2,3,4동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동별로 현황을 살펴본다.

광명1동

공공문화시설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전체 23평의 공간이지만,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공간은 16평이다. 다목적실, 주민쉼터, 다용도문화공간, 주로 건강을 위한 수지침과 단전호흡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2곳,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2곳이다. 목감천변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았지만, 여름철 우기와 겨울철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이용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명1동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다. 단독주택과 빌라형 주거가 전부이다. 아파트가 없는 동네다. 이를 두고 광명1동 김인호 동장 "광명시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동네"라고 말한다. 다른 동네에 비해 상권도 형성이 돼있지 않다. 재래시장 정도가 있지만, 다른 동에 비하면 상권이라고 부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래시장으로 광복시장이 있다.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있어 부동산을 지니고 있는 주민들이 재테크의 재미를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광명1동은 그런 것과도 거리가 멀다. 처음 광명시가 개칭이 될 당시만 해도, 광명1동은 먼저 형성이 된 동으로 가장 잘사는 곳이었다. 지금은 가장 어려운 동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부동산이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점은 있다. 민심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웃간에 정이 넘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1동은 동 청사를 새롭게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4년에 예

산을 확보해 착공에 들어 갈 계획이다. 5층으로 된 문화복지 건물로 지을 예정이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공공 문화기반 시설로서 활용이 될 수 있어 지금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광명2동

광명2동 역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외에는 다른 공공문화 시설이 없다. 주민자치센터 역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되는 회의실이 전부다. 이곳에서 강좌 프로그램과 회의가 이루어진다. 꽃꽂이, 영어, 글짓기, 노래교실, 사물놀이, 한국무용 등 강좌가 어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동사무소 한켠에는 12대의 컴퓨터를 갖춘 정보사랑방도 있다. 놀이터와 경로당이 같이 있는 곳을 포함하여 경로당 1곳, 놀이터 2곳이 있다. 목감천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있다. 주민자치센터 사물놀이 반은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나 어린이놀이터에서 진행이 되는 대보름 윷놀이 행사 때 이들이 실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동 체육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광명2동 역시 아파트는 없고, 일반 주택단지이다. 주거문화는 1동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2동의 상권은 다르다. 가구거리에 포함된 가구 상점도 많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주택지역과 인접한 여관 숙박시설 및 술집골목이다. 현재 시에서 신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법

적인 장치를 통해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동사무소 관계자는 지적한다. 광명2동이 유흥지구로서 이미지를 더 올리도록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전형적인 지역의 문제다. 주차문제를 호소하는 것은 공통이다. 경륜장이 완공이 되면 나타나게 될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한편 가구의 거리는 광명2동의 특성으로 삼을 만 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가구 거리가 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 상점들이 인도 변에 내놓는 가구들이나, 들고 나는 가구 상점들의 차들이 도로 혼잡이나 인도 주변의 혼잡을 야기하고 있음이다. 상권을 활성화하면서도 가구 거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어떠한 특성도 아직은 찾기 힘들다.

광명3동

광명3동 주민자치센터는 앞의 두 동에 비해 조금은 형편이 나은 듯 하다. 동 청사 건물의 2,3층을 사용하고 있다. 지하에는 체육단련장이 있다. 헬스기구도 30종 40여점이 들어서 있어 비교적 주민들 이용이 활발해 보인다. 2층에는 관남의 방이 있다. 컴퓨터 15대를 갖춘 컴퓨터실도 있다. 그리고 전년도에 생긴 새마을문고도 있다. 3층에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문화공간이 있다. 재즈댄스 등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문고의 경우 1,300여권의 도서가 확보돼 있다. 1인당 3권의 도서

→→ 광명1동에서 4동 기본 개요 (2002.11.1 현재 기준)

구분	세대수	인구수(명)	남성인구	여성인구	면적(km)
광명시 전체	115,546	340,966	171,086	169,880	38.50(구성비)
광명1동	5,516	16,248	8,274	7,974	0.31(0.8)
광명1동	4,936	14,139	7,091	7,048	0.28(0.73)
광명1동	5,174	14,009	7,009	7,000	0.30(0.78)
광명1동	6,273	18,914	9,354	9,560	0.27(0.27)

대여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주일이다. 화,목 오전10시에서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대출업무 등을 하고 있다. 현재 300명 이상이 이곳에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

광명3동의 가장 큰 특성은 아마도 재래시장일 것이다. 광명시에서는 가장 큰 재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 유통매장 크로앙스가 건설이 되고 있어, 기존 재래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재래시장 상인들도 올해 상인연합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 450여 점포들 중에 280여 점포가 이 연합회에 가입을 한 상태다. 한편 상점들의 구성을 보면,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절반가량이라고 한다. 시장 상인회에서 정월대보름척사대회 등을 상인들을 중심으로 가지는 경우는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른 형태의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3동 동장은 향후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와 협력해서, 인근 광명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 먹거리 장터나 싼 물건 등을 내놓아 파는 등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재래시장 축제 등을 생각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상인 기반이 약해 구상 중일뿐이다.

광명3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 비교적 규모를 갖춘 두 개의 점 반야정사와 청룡사가 있다. 반야정사의 경우 지역주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요가강좌를 진행하기도 한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가지기도 한다. 큰 교회도 3개가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주로 해당 신도들을 중심이다. 공원은 없지만, 광명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주민들을 위해 운동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유일한 듯 하다. 인근 2동 주민들도 이곳을 이용한다.

광명4동

광명4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놀이방을 갖춘 8대 규모의 컴퓨터실과 취미교양교

실을 겸한 사랑대화방을 갖추고 있다. 컴퓨터실은 동사무소 근무시간과 같이 이용시간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초등학교생은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이다.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노래교실, 풍물교실 등 강좌가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서예 강좌가 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기도 했다. 댄스스포츠나 노래교실 강좌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비교적 활발하게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참여하는 편이라고 한다. 다른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조사하기도 한다.

한편 동 주민들 중에는 20년 이상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토박이들도 많다. 맞벌이 부부도 많다. 동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한진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주택단지에서 거주한다. 경로당이 3곳이고, 어린이 놀이터가 2곳이다. 시가 개척이 되기 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이 많고,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 큰 교회가 1곳이고, 학교로는 광명남초등학교 1곳이 있다.

4동의 특징으로는 광명사거리 상권의 중심인 패션문화의 거리다. 패션의류 상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가구 거리와 마찬가지로, 이를 활용한 어떤 움직임도 없다. 의류 상점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근거로 '패션문화의 거리'라는 지정만 있을 뿐이다. 이를 특성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이나 행정의 노력은 없다.

광명1동부터 4동의 문화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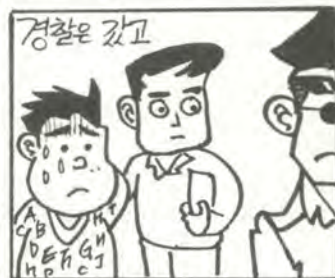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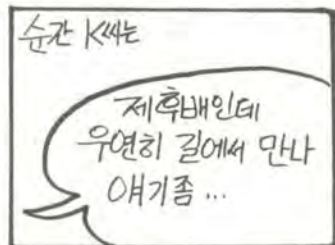
앞서 살핀 대로 광명1-4동에는 공공문화시설이 빈약하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적 내용도 적다. 문화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양식이고, 생활의 그 자체라면 주민들의 문화는 존재한다. 그러나 보다 특징을 찾고,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노력을 근거로 살핀다면, 그러한 흔적들은 많지 않다. 적극적으로 이끈다는 것

이다.

흔히들 광명의 문화적 지형을 언급할 때 철산동이나 하안동에 비해, 광명동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말한다. 주민들이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나 주변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러 측면에서 동간의 격차를 지역문제로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접근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화시설을 포함한 공공기반시설의 편중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명동권'만을 놓고 볼 때, 이번에 살펴본 광명1-4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센터가 다소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은 전무하다. 주택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주차문제, 유흥 및 숙박시설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상권이 형성돼있음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특성있게 환원되는 것도 별로 없다. 지역문화행사나 동(마을) 축제 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행위를 하는 노력도 없다. 당장 그렇게 할 만한 공간도 없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말한다. 4개동에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대답이 '문화랄 것이 뭐 있나.'라는 식이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 주민들의 중심이라면, 이곳은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과 동 관계자들이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발상으로 주민문화를 위한 기획에 나서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것을 발굴해서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동 주민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구문화의 거리와 패션문화의 거리, 재래시장 그리고 목감천 등 주민들과 문화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적 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종락



제2회 청소년문화축제

‘2003 Youth Festival’ 스케치

■ 광명시 청소년 문화의집 | 부장 이은경 ■

어느덧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 두 돌을 맞이하였다.

2001년 6월 30일 비가 많이도 내리는 날, 그로부터 2년 남짓 100,00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의 문화시설들을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좋은 부모되기 공개강좌, 테마가 있는 가족여행, 청소년문화기행, 청소년방송비평교실, 자원봉사 School, 인터넷검색대회, 지하철 습격사건, 상담창고, CA 및 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의식조사 사업, 청소년직업특강, 청소년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여가활동,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인성 뿐 만 아니라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몇 개월 전부터 두 돌을 맞이한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심상치 않게 다목적홀에서는 들쭉들쭉, 분주히 청소년들이 오고가며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 조그마한 움직임은 ‘아하~~’ 바로 제 2회 청소년문화축제 ‘2003 Youth Festival’ 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제 1회 청소년문화축제를 치른 작년과는 달리 3일에 걸친 도전이 펼쳐졌다.

2003년 8월 1일 청소년문화축제의 문을 연 첫째 날은 청소년세미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방법과 활동’이라는 주제아래 청소년지도자들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가운데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펼쳐졌으며, 8월 2일 둘째 날에는 철산 상업지구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공연마당 ‘Surprise Concert’ 가 ‘Be the Cool’에 이어 즐거운 한마당을 펼쳤다.

8월 3일 청소년문화축제 마지막 날인 셋째날은 생소한 파티문화에 대해 도전해보는 ‘Surprise Party’를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네멋대로 해봐 그래피티 경연대회’는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3일간의 긴 행사였지만 청소년들에게는 8월의 첫날을 뜻 깊게 시작하였다는 기억을 심어주었다.

제 2회 청소년문화축제 ‘2003 Youth Festival’ 의 3일간의 행사를 조금 엿보면,

이 행사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유동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스스로 만들고 진행하고 참여자 전체가 객체이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청소년 문화의 이해를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서

세대간·계층간의 갈등 해소와 청소년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끝으로 미래청소년문화의 방향제시 즉, 청소년문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창조성, 전통문화와 신세대 문화간의 접목 및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번 행사 또한 제 1회 청소년문화축제와 같이 기존의 청소년축제가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3-4개월에 걸친 기획회의와 연습을 통해 청소년들이 만들고 준비하여 즐기는 한마당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뒤로 한 채 제 2회 청소년문화축제는 3일간 진행되기 전후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청소년세미나의 경우 일정에 대한 고민이 적어 사전 실무자들의 충분한 준비가 미흡했으며, 전체일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마지막 날 Surprise Party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고, 청소년문화라고 하기엔 문화의 다양성을 그다지 내포하지 못하고 기존에 흔히 보여지고 있는 댄스, 밴드, 코스프레 정도의 내용에만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지도자의 방향설정 및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함께 따라주지 못하여 기획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청소년스스로의 자발적, 적극적인 모습이 미흡하여 실무자에 의한 회의 진행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제 1회 때의 'Be The Cool'과 마찬가지로 더없이 즐겁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한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며, 보이지 않는 경쟁과 함께 단의의 경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청소년문화축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축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안겨준다.

청소년축제는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번의 이벤트적인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닌 고민하고 생각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특히, 축제를 통해 교육적인 요소를 배워가고 세대간, 기성세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축제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가치, 조직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며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끝으로 다양한 청소년문화를 보여주기에 미흡한 행사였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즐겨워하는 모습에 청소년들의 힘을 발견한다. 다양한 청소년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기획하는 행사는 꾸준히 2004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다. 좀더 나은 모습으로 제 3회 청소년문화축제 2004 Youth Festival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청소년과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식구들은 한결음씩 나아갈 것이다.

■ 광명문화원 | 간사 신란희 ■

“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어요, 흙과 함께 할 계획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농사지을 겁니다.

”



광명시청 건물 좌측편 한켠에 자그마한 보급자리를 두고 있는 푸른 광명21에 인터뷰를 청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문턱을 넘어서었을 때 항상 웃는 얼굴에 멋진(?) 수염이 눈에 들어오는 한복차림의 사람이 있었다. 푸른 광명21의 허기용 사무국장이다.

서먹한 분위기를 바꿀겸 먼저 개인적인 질문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 “먼저, 광명에서 이러한 지역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광명에 살게된지는 13년이 되었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학활동을 시작으로, 광명 YMCA에서 회원지도자 과정을 연수하고 활동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지역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때 활동하면서 느꼈던 건 지역시민운동의 방향이 시민은 없고 단체만 있더라 겁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단체중심이고 단체운동도 패권주의가 만연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결합력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어요, 흙과 함께 할 계획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농사지을 겁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끝난 후 좀더 친근해진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질문에 들어갔다.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푸른 광명 21에 대한 자료를 보았지만 내용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렸다.)

▶ “푸른광명21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좀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 복지,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상의 문제를 시민과 행정이 같이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고, 주로 그중에서 환경, 교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하죠. 사실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명 지역도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머지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우려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린벨트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었지만, 이제 그린벨트도 풀리고, 광명시에서도 현 인구 34만에서 50만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럼 인구의 1/3이 느는 겁니다. 주택, 비즈니스 관련해서 많이 들어올건데, 그러면 심각한 산, 녹지가 없어지고, 기온, 습도 상승, 바람의 길이 차단됩니다. 인간이 자연 없이 살 수 없으므로 자연환경을 접하려면, 시간과비용을 대서 외부지역으로 원정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더더욱 친화적인 자연이 없어지니, 스트레스와 갈등이 심화될 겁니다. 삶의 질도 떨어질 거구요, 파괴의 대가를 치러야할 겁니다. 물론 지자체나 지주에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사는 주민에게는 좋지 못해요,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해야합니다.

▶ “지방의제21이란게 무엇인지,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 뒤 질문이 같은 질문선상에 있는데요, 일단 지방의제라는게 말이 어려워져서 그러는데요, 원래 출발은 환경문제를 포괄적, 통합적으로 시민, 행정, 기업이 네트워크하여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생겨났구요, 브라질의 누우 회의에서 맨 먼저 그 문제가 다루어졌고, 여기서 국가별 의제, 지방자치단체별 의제를 실천하기로 결정 내려졌죠.

▶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주요 실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효과와 장단점이 있다면?”

앞에서 말한 민, 관, 기업의 3자 파트너십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주로 지역단체들의 공모를 받아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통화’를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각은 지역통화를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바라봅니다. 지역 서비스의 나눔이 지역의 신뢰성을 높여 지역 공동체를 이루길 바라는거죠. 지역통화의 제안과 과정을 이끌어주고 실제적인 진행은 역량있는 지역단체에서 맡아서 하거나 공동사무국을 두고 거기서 여러 단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지역통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상의 방식이 차이가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나갈지는 미지수죠, 하지만 이러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2003년 환경의날 행사는 어떠한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꼭 행사를 했었죠, 올해도 이날 했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게 특별하게 기리는 날에만 신경쓰는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년쯤부터는 딱 정해진 6월이 아닌 4월이나 가을에 행사를 할까 합니다. 6월에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각 단체별로도 바쁜 주간이니까요. 저희는 주로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 일정도 중요하죠, 이제는 행사는 지양하고 수요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 “앞으로의 푸른광명21의 방향은?”

저희가 중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안양천의 경우 지역단체들(민간), 기업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양, 광명, 기업(노루표 페인트)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천 살리기 운동은 무엇보다도 성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하지만 광명의 특수한 환경에서는 쉽지 않지않요~~



빛누리 독서회

책 책 책...

■ 광명문화원 과장 | 한옥현 ■

우리나라 성인 월평균 0.8%로 한 달에 4권 이상 책을 읽는다는 성인은 6%를 차지했으나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도 전체의 17%로 우리는 책을 읽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다.

‘책 속에 삶의 지혜가 있다’라는 옛 성인의 말처럼 책을 통해 삶을 경륜을 만들어 가는 동호회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광명시에 ‘빛누리독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호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정모가 있는 8월 12일 광명시립도서관,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분들이 모여 8월 2째주 주제인 “마당깊은 집”에 대해 2시간 동안의 발표 및 토론에서 삶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간접 경험적 효과를 주고 있으며 발표자 의견을 존중하여 경청하는 분위기속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발표 및 토론이 끝난 후 독서회 회장 김무숙님과 몇 가지 인터뷰를 시작했다.

Q 빛누리독서회란?

A 광명시 여성대상으로 운영하는 독서회로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미리 선정된 책을 읽고 독서감상을 토론하며 창작활동과 기타 문화활동을 벌이는 모임으로 1993년 3월에 시작하였습니다.

Q 빛누리독서회 회원수와 회원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28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발생시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립도서관에서 정기적인 모이고 있습니다. 모임을 알리기 위해 전화나 메일이 아닌 엽서로 하고 있으며 나뭇잎, 색종이 등으로 엽서를 꾸며 발송하고 있습니다.

Q 빛누리독서회는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A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모여 선정된 우량도서를 읽고 독서토론과 감상문발표 등으로 서로의 의견에 대해 격려하면서 독서회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있으며, 문학기행, 영화감상, 문예창작, 광명시 관내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여성승씨자랑에서 시와 수필 부분에서 회원 3명이 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회원 중 현재 방송작가로 데뷔하여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을에 문학기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빛누리'란 작품집을 통해 1년여 동안의 활동 내용을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라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임을 갖는 것, 지역사랑과 인간관계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발전하는 '빛누리독서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탐방

화성 쟁이마을

■ 문화저널 | 취재팀 ■

화성 제부도 가는 길, 풍광 좋은 곳에 위치한 문화예술촌 쟁이골은 대지 4천여평에 교실이 10개로 꽤 큰편이었다. 교실은 둘로 나누어 각각 개인 작업실로 하고 숙소와 샤워장도 마련되어있다. 그중 교실 두개를 터서 복도와 함께 상설전시장으로 꾸몄는데 전시는 물론 문화관련 강의, 청소년 프로그램, 일반인 1일 문화체험의 장으로 이용하고있다. 이곳은 몽골촌 캠프장과 전통 너구리가마도 갖추고 있다.

열린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쟁이골에선 '하늘 · 땅 · 바다 · 예술 문화공동체'라는 테마로 자연과 삶에 대한 진지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11월 15일부터 문화예술촌 쟁이골 창작예술제가 열흘동안 열렸다. 해마다 열리는 '단봉(丹鳳)예술제'가 그것이다. 종합문화예술축제를 열어 지역주민과 예술인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경기도내 작가들이 쟁이골에 모여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제이다.. 단봉예술제는 갯펄을 주제로 한 천연염색전, 옹기 막사발전, 김지하 원작 마당극 '밥' 공연 등 포괄적 의미의 종합예술축제로 갯펄이라는 대자연을 배경으로 자연과 예술, 참교육을 실천하는 원형적인 축제마당이다.

시설들을 살펴보면 하늘 · 땅 · 바다, 문화예술, 공동체의 경험이 가능한 쟁이골 문화수련센터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강당 200평, 세미나실, 샤워실, 숙박시설, 대형식당으로 개조했다. 분야별로 전문작가와 시청각교재를 활용한 현장교육이 가능하며 이국적 풍치의 몽골촌 캠프장은 야외 공연무대로 150여명 수용, 조각공원 및 몽골전통가옥(빠오) 4동을 설치한 휴식공간, 가족 · 단체 캠프파이어 행사도 가능하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수영장, 야외스크린 영상시설이 준비돼있다.

전통 너구리 가마가 있는 도예촌은 도예가 송명길의 현대도에 작품 상설 전시장과 성형작업실이 있으며, 생활자기를 판매한다. 연수원 입소



“

열린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재이콜에선 '하늘 · 땅 · 바다 · 예술
문화공동체'라는 테마로 자연과 삶에 대한 진지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자들에게는 특별제작 시범외에 개인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강연숙 원장이 어린이 도예캠프 및 일반인 대상 도예교실을 진행한다.

해마다 작품전시회를 갖고 있다.

'염색체험교실'은 천연염색과 그림 염색 작품을 상설 전시, 판매한다. Order made 개념의 특별제작은 물론 생활염색공예품도 판매한다. 염색체험교실은 연중무휴 개방돼있어 일반 수강생과 염색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부도 갯벌 극기훈련 ·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식과 교양, 레저와 투어, 체력과 담력훈련을 위한 장비도 갖췄다. 전문강사의 정신력 강화교육과 체력훈련을 위한 해양 특수훈련, 갯벌탐사 등의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아이들이 떠난 적막한 폐교가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꿔놓고, 문화향기가 넘치는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어 예술이 더 이상 도시민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앞으로 경기도에도 폐교를 이용한 문화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 광명시 청소년문화의집 | 관장 윤철 ■

“청소년문화에 대하여”

광명의 청소년인구가 8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청소년문화가 존재 하는가? 라고 자문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며 주로 찾는 곳은 성인중심의 상업지역이다. 청소년관련 문화행사도 성인들에 의해 기획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참여는 수동적이며 비주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광명시 청소년문화의 현실이다.

우리들의 딸? 아들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과제이지만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때 가능한 일이다. 문화저널의 지면을 통해 청소년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문화 현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첫째, 청소년문화는 미숙한 문화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만들어 내는 삶의 양식이 아직은 정식으로 성숙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같은 관점은 청소년은 늘 보호 받아야 하며 책임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문화는 이탈문화이다. 청소년들이 영위하는 삶이란 규범에서 벗어나는 늘 문제아의 소행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은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만큼 책임도 절감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탈적 행위는 연령에 따라 책임의 한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청소년문화는 하위문화이다. 청소년들의 삶의 유형은 소수자가 만들어 내는 하위문화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쳐 청소년들이 성인에 이르게 되면 그들의 옛날 청소년 문화를 일과성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문화는 대항문화이다. 청소년들의 삶은 그들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엮어내는 독특한 삶의 양식이다. 성인들이 일정한 유희의 방법을 알고 있듯이 그들 역시 그 단계에서 유희로서의 인생을 바라보는 한 표현방식이 문화라는 입장이다.

다섯째, 청소년문화는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총체적 유형이다. 청소년들이 각 영역에서 이루어내는 삶 그 자체가 모여 청소년들의 문화를 창조해 낸다는 문화의 다원적인 입장도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문화의 현실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에 열광한다든지 유희업소 등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조건을 들여다 보아야만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율권이나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못하며 대체로 학교문화를 청소년문화로 간주하는 경향이 큰 편이다. 아시다시피 학교문화는 획일적이며 결과위주, 참관위주, 형식적관계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건강한 문화의 결핍 현상으로 왜곡 된 채 상업적인 대중문화 속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문화의 현실이다.

청소년들은 공부와 관련하여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성적으로 자신을 평가 받아야 하고 친구와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일상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 대중문화이다. 청소년들은 고급문화예술보다는 대중문화위주의 편식이 심하다. 대중문화의 편식이 단순히 대중문화가 고급문화에 비해 질이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주는 중독성이 문제이며 창의적인 활동이기보다는 수동적인 문화활동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 라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TV, 영화, 인터넷 등의 대부분의 매체가 10대를 겨냥한 소비지향적인 내용 일색이며 대부분 감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

청소년들이 즐겨가는 공간 역시 청소년들의 기호나 성향에 맞추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색상,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상품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대중문화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소비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며 문화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하며 유행위주의 감각만으로 고정되어 있는 청소년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독성이 크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대중음악의 경우 대부분 어떤 음악이냐가 아니라 스타의 용모, 머리모양, 의상 등 이미지와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등이 상업적인 성인들에 의해 기획된 철저한 스타마케팅의 결과이지 청소년들에 의해 생산된 문화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안 모색

우리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들 스스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화향유는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우기보다는 모방적이며 수동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 특성은 각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보자.

첫째, 청소년에게 적합한 우리의 문화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접촉경험을 늘려주어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시설로써 “여기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환경을 구성하여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히, 지자체의 관심이 증폭되어야 하며 지역의 작은 축제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거나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둘째,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청소년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킬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이 없음을 들었다.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을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다. 학생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학교 당국에서도 학생들의 문화활동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 할인카드제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음악회나 뮤지컬과 같은 고급스러운 문화활동을 즐길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다. 미국 뉴욕의 경우 뮤지컬 극장에서는 비용도 저렴하며 학생관람 좌석을 맨 앞 자리에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극장을 찾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과 밀착된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이 그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최근 청소년들은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코스프레, 춤, 음악, 패션 등 청소년들이 직접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들에게 문화관련 생산현장의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제공되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산업현장인 영화제작, 음반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서 단순히 청소년이 문화소비의 장에서만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문화의 내용을 제작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문화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문화의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주역이 될 때, 청소년들의 문화환경이 확장될 것이며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토대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

■ 참고자료 ■

- 청소년행동유형연구, 이용교, 1996
-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2001
- 한국의 청소년정책, 차경수, 2000
- 청소년의 문화산업 참여여건 조성방안 연구, 청소년개발원, 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문화 실태조사

■ 광명시 청소년 문화의집 | 이정순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는 소박하다. 친구와 놀거나 무엇을 사고 싶을 때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혹은 소박하고 단순한 욕구로 시작을 했던 아르바이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사회의 나쁜 점만을 배우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서는 청소년 노동을 효과적인 사회경험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일자리 알선과 보호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업 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억압적인 학교 교육 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대학을 가야한다거나 장래를 위해 무언가 희생해야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깔려져있다. 그러나 사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아르바이트 문화를 인식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아르바이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청소년들이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많다. 지난해 5월 YMCA가 실시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나 하고 있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 901명의 40.8%인 368명에 이르렀으며, 그 종류도 분식점·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59.5%), 전단지 돌리기(10.6%), 백화점·수퍼마켓 등에서 물건팔기(8.7%), 주유소(8.4%)등 여러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의 아르바이트 종류 중 패스트푸드점, 전단지돌리기와 같은 비교적 건전한 아르바이트가 있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립심, 부모에 대한 고마움, 노동의 가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아르바이트의 건전한 측면일 것이다. 자립심은 한 사회에 나아가 일을 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상황인식에 대한 판단이 길러 질 것이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는 자신이 땀을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땀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경제관념일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소비문화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소비자로서의 책임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의 주체로서 올바른 소비문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른들의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많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탈선을 방지한다는 입장 하에 아르바이트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른들은 아르바이트가 청소년 범죄와 탈선 등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주유소와 유흥업소 등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가출청소년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나 호객꾼(삿끼)등으로 일하거나, 주유소에 고용되어 합숙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미성년자 매매춘(원조교제)등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

외국에서는 청소년 노동을 효과적인 사회경험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일자리 알선과
보호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업 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A rbeit

대한 시선이 급지만은 않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퇴폐성이 있지만 올바른 청소년 아르바이트문화가 확립되고 정착이 된다면 이러한 퇴폐성은 사라질 것이다. 올바른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인식 개선과 청소년들의 인권보장 문제일 것이다. 사회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이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청소년보다 모르고 있는 청소년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는 청소년노동권익보호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아르바이트생에게도 노동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는 노동의 의미를 느끼는 경험, 장차 자신의 직업에 대한 준비와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나 사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교육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상당부분 음성화되어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양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경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청소년들의 노동권익이 보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가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학교와 사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교육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고 양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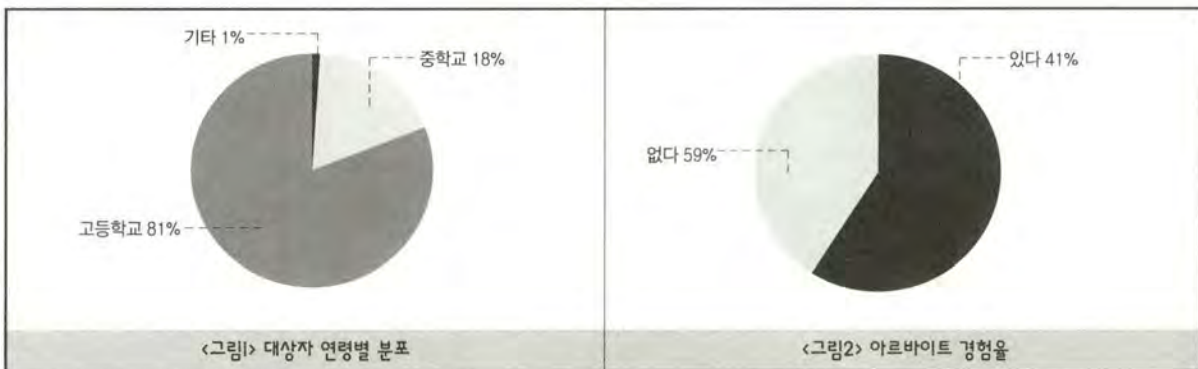


광명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19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험 유무와 아르바이트의 업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그림 1>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자중 41%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용돈조달(36%), 사회경험(7%), 유흥비마련(5%)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PC방?책대여점 등의 매장관리(31.4%), 패스트푸드점(15.8%), 편의점(15.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명시 청소년들은 전단지 배포(15.1), 패스트푸드점(10.6%), 막노동(4%) 등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립심, 돈의 가치, 부모에 대한 고마움, 노동의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길 원하고는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장소와 여건이 되지 않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도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점을 살펴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점을 수면시간부족(14.1%), 적은 임금(14.1%), 학습시간부족(5.5%), 업무횟포(3.5%)로 말하고 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여가시간 부족, 임금체불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은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설문 대상 중 여학생의 비중이 37.9%로 상대적으로 낮아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는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할 기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에 있어서도 시급2~3천원이 26.1%로 조사되어 남학생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의 청소년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립심, 돈의 가치, 부모에 대한 고마움, 노동의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인 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나 제도가 철저히 정비되어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업체의 탈선이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개발 보급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교육의 장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바 문화를 만드는 청소년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 권효선 ■

아르바이트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직적인 조직관계는 미래에 직장생활을 할 때와 그 구조가 비슷하다. 따라서 미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운 한가지 이상의 일은 나중에 꼭 쓸모가 있다. 하차게는 커피를 타는 일부터 판매직, 사무직 등 그 당시에는 시간남비 같고 지루한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에는 화술이나 적극성 또는 좀 더 깔끔한 문서 작성법 등 다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것은 자기가 적성에 맞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후에 직장 생활시 이직 및 전직에 따르는 고충을 피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좀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부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개개인마다 접대 방법 및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을 통해 부모님의 고충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계기의 50%이상은 청소년들의 소비문화가 커지면서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다. 청소년들은 학업 뿐 아니라 자신들의 취미생활, 사교 싶은 것, 이성친구, 집안사정, 여가활동 등 청소년들의 소비문화에 적응하고,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돈

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돈은 부족하다. 비록 돈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돈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지식을 무한대로 습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처음 밟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운동과 춤을 좋아하고 즐기는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 청소년의 이야기이다.

고등학교 1학년때 친구들과 길을 걷다가 우연히 스포츠댄스 감습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문구를 보고 바로 아르바이트 문의를 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사 안된다는 사장님의 말씀이었지만 끈질기게 찾아 요구하고 또 요구하여 겨우 허락을 받았다. 나이드어리며 사회 경험도 없고 또한 누구를 가르친다는 일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처음에는 청소년이며 운동복 빨래며 잡일부터 일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스포츠댄스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감습생들을 가르치는 연습도 남몰래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시간감사였던 선생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두 시간을 핑크를 냈다. 당황한 사장님은 어쩔줄 몰라 하셨고 나에게 오셔서 그 동안 봐온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서 시간만 때우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엔 조금 갑작스럽고 떨리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하고 싶었던 기회다 싶어 열심히 가르쳤다. 감습생들은 어려워 보이는 내가 시간 때우기 위한 사람이란 걸 눈치 채고 인상을 찌푸리며 사장님께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소리를 지르며 지루하지 않게 감습을 하고 있었

다. 한 30분쯤 지나고 나서는 모든 수강생들도 웃으며 열심히 수강하였고 나중에는 환한 미소로 저에게 수고하였다고 말씀까지 해주셨다. 처음으로 남을 가르치고 땀 흘렸던 그 시간은 내 생애에 절대 잊을 수 없던 기억이었다. 그 이후로 사장님은 절 인정해 주시고 청소와 빨래가 아닌 스포츠댄스 강사로 거듭났다. 그리고 고3이라는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른 친구들은 입시 및 취업준비를 하였지만 난 달랐다.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및 더 개성있고 독특한 스포츠댄스를 개발하여 창업 준비를 하였다. 물론 창업이 쉽지만은 않았다. 자금조달부터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부족 및 독특한 기술 개발 등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걸리고 넘어져야 했다. 그럴때마다 그래도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건 아르바이트를 해 오면서 사장님을 통해 눈여겨 봐왔던 감습관리, 수강생 홍보, 감사설의 등 거의 대부분이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며 일을 한다. 그때 그냥 지나쳐갔던 사장님과 선생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에 와서는 "아 그랬었구나~" 하며 그들을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창업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은 항상 질문하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나에게 하늘과 같은 존재이다. 또한 내가 창업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준 창업 준비 교육이었다. 나와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

창업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진 못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경영하며 남보다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이렇게 말한다!!

■ 광명여고2 | 배이슬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8살 소녀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하고 명랑한 아이입니다.

저는 지금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냐고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친구의 권유와 마침 일할 자리를 소개받게 되어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2,300원으로 큰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일하면서 알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시간만큼은 계속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하고 귀찮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한다기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유쾌한 기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이런 것들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새로 만나고 같이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운다고 해야 할까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꼭 찬 그런 기분을 새롭게 느껴집니다. 윗 상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선배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예의가 평소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업종이기에 웃음과 친절 등을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좋은 기분으로 일을 하는건 아니예요.

저는 단지 아르바이트생일 뿐이고 그만큼 직원이란 무서운 분들이 제위로 계십니다. 일을 한지 아직 한달 밖에 안된 새내기이지만 벌써 몇 번이나 직원들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고 고등학생인 저는 어리다고 무시받기 십상이었고 건의사항이 있어도 시키는 데로만 일을 해야 했죠.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당일날 전화한통화로 사전상의 없이 빨리 나와서 일하라는 등의 사생활이나 여가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예고 없는 처사는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요? 솔직히 돈이 필요해서 입니다.

부모님은 매달 부족한 용돈만 주실뿐이에요. 하나쯤은 갖고 싶은 유명메이커 옷은 정말 꿈도 못 꾸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장만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제 친구들도 이유는 비슷하고요... 사치하고 유흥 쪽으로만 돈을 쓴다고 인식하는 어른들도 많지만 저희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물건을 하나씩 장만하는 보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벌기가 쉽지만은 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막상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들은 그렇게 쉽게 돈을 쓰진 안아요. 오히려 용돈만 받는 친구들보다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모님의 반대!! 이해하고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
에 돈을 받고나면 뿌듯함이 생겨요. 공부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일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계속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을거예요!!^^*



춘천 인형극제를 다녀와서...

■ 광명문화원 | 간사 신란희 ■

8월 8일(금)부터 17일(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춘천인형극장에서는 인형극 축제가 펼쳐졌다. 198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여 국내외인형극단과 인형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 한마당으로 인형극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제공하는 공연예술축제였다. 춘천인형극장은 2001년에 건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형극장이다. 춘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개막퍼레이드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는 해외 9개국 10개 극단과 국내 48개 전문극단, 22개 아마추어극단들이 참가하여 공식초청공연, 자유참가공연, 거리공연 등의 풍성한 공연을 마련했다.

개막퍼레이드는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시작하여 팔호광장, 운따사거리, 육령극장을 거쳐 명동사거리, 시청에서 끝이 났다. 춘천시내의 주유지역 곳곳을 순회하여 펼쳐지는 개막퍼레이드를 통해 춘천인형극제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손색이 없으며, 국내외 인형극단과 아마추어 인형극 참가단체, 유치원,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등이 모여 다양한 볼거리를 준 가장행렬로, 시민들과 공연 참가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행사였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개막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차에 올랐다. 가는 도중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군악대 소리와 대형 인형, 깃발을 발견하고, 즉시 차에서 내렸다. 개막 퍼레이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짐작케 했다. 퍼레이드를 계속 따라가며 참가 단체 면면을 관찰했다. 군악대 바로 뒤에는 대형 인형과 깃발이 줄을 이어 따라오고 있었고, 그 뒤를 해외인형극 단체들이 인형을 들고 있었다. 바로 뒤에는 국내단체들이었는데 모두 제법 어려 보였다. 많아야 25 정도 되나??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을 만들다보니 어려보인다거나, 각 인형극 단체의 막내들이 퍼레이드에 참가했거나 하고 추측할 뻔했었다. 뒤를 이은 어린이집 친구들은 귀여운 복장으로 참새가 줄을 서듯 정렬해 있었고, 인라인 동호회의 혈기찬 질주가 뒤를 받쳐주었다. 퍼레이드의 마지막 도착지인 시청에서 어려보이는 인형극단 단원 중 한 사람에게 게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자신들은 학생이며, 어제 열린 아마추어 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개막퍼레이드에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어떤 전문 인형극단보다 눈에 띄었던 단체들의 대부분이 아마추어 학생단체들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개막식을 보니, 아마추어 인형극팀 시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고 개막퍼레이드도 그러했다. 그제서야 수궁이갔다. 개막퍼레이드에 있어서도 아마추어 인형극팀의 활약이 돋보였던 이유를... 주최 측의 적극적인 인력 활용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뒤를 이은 어린이집 친구들은 귀여운 복장으로 참새가 줄을 서듯 정렬해있었고,
인라인 동호회의 활기찬 질주가 뒤를 받쳐주었다



광명의 숨은 일꾼 -

무대예술가 서두원 씨를 만나다

■ 광명문화원 | 간사 신란희 ■



- 서두원 -

.czech praha Academy (D.A.M.U) 무대미술 수학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학 석사

.Bmo 세계그래픽 비엔날레 참가

.Praha 세계무대미술 팩토리엔날레(PQ99)학생부문참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명지대에서 예술사를 강의하고 계시고, 무대디자이너입니다. 그럼, 질문 시작할게요.

언제부터 무대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더불어 요즘 근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어, 대학도 산업디자인과를 택했습니다. 8년 전 대학 3년 때 우연히 연극관련 디자인 저널을 보고 예술감독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대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관련서적을 찾아보며 공부를 했고, 인테리어 학원도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무대디자인과가 없는 관계로 유학까지 결심을 하고 다녀왔죠.

요즘은 방학이라 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잠시 쉬고, 무대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구요, 제 개인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개통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말에 계획중인 유학준비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시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사례와, 더불어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얘기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인 작업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작업해야 하는데, 워낙 이 계통의 사람들이 예술적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이라 자기주장도 강하고해서 서로 조율하는게 힘이 들죠, 또 다른 힘든 점을 들자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나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원하는 작품을 만들지 못할 때, 결국 현실타협으로 작품과의 타협을 할 때(그렇게 되면 꼭 원하는 작품을 놓치게 되죠~~)입니다. 보람이라면, 그 반대겠죠, 사람과 경제적인 것과의 대립이 잘 풀려서 작품이 잘 나왔을때, 그리고 그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영향을 받았을때, 그 때가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내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감을 얻듯,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물론, 첫 작품이겠죠,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 올리게 된 작품인데, 고생도 참 많았지만, 그 만큼 보람이 컸던 작품입니다. 기대한 만큼 잘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구요.

강단에 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르치는 일과 무대를 디자인하는 일 중 어느쪽이 더 즐거움을 주는지요?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 처음 강단에 섰을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리라 다짐했는데, 막상 해보니, '내가 많은 것을 모르고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배워야겠다는 다짐과 공부의 끝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과 무대 디자이너로서의 삶, 서로 장단점이 뚜렷하고 보완을 해주는 (같은 예술 계통으로서의 상호보완점과 차이점이 있죠!!)일로 꼭 어느쪽을 꼽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무대 작품이 있다면?

특정한 작품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살바도로 달리와 같은 초현실주의 작품을 구현해보고 싶군요.

광명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와 광명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되었구요^^, 광명시에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광명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서두원씨는 올 4월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이은경팀장과 백년해로를 맺었습니다.)

여유 시간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주로 음악 감상과 책을 읽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음악감상과 독서를 통해서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책은 주로 예술철학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요즘은 '바우하우스'라는 에세이를 읽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학을 가신다고 하던데, 유학을 결심한 배경이 있다면??

독일 여행 중 한국유학생들을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삼십대 후반쯤되는 분들이셨는데,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우스개 소리로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마흔까지는 공부해도 늦지 않아', 즉, 그 분들이 말하고자 했던건 (마흔을 곧 바라보는 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건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는 평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이를 생각하면, 섣뭇 유학길에 오르긴 쉽지 않죠, 그때의 여행이 자극이 조금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배우고자하는 욕구에서 유학 결심을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강단에 서본 결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강단에 섰을 때는 좀 더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리라 다짐했죠.

마지막으로 최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직업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셨을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줄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수, 탤런트, 감독 등의 직업에는 관심을 많이 보이지만 그 외의 직업들, 즉 그들을 서포트해주는 직업들에 관해서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무대디자인 계통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으로서 학교공부에 충실하고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책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말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앞으로 유학을 다녀 온 후에도 더욱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잊혀져가는 것들,,,

우 표



■ 문화저널 | 편집팀 ■

초등학교시절(요즘도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국군아저씨에게'라는 제목하에 일제히 반친구들은 선생님 지시하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이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께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는가 하면, 나처럼 '이렇게 귀찮은 숙제를 내주다니'하는 생각으로 건성건성 쓴 아이들도 분명 있었으리라...

한참 사춘기에는 친구들끼리 우정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행이었다. 물론, 우정일기도 있었다. 마치 연인들이 편지를 써서 교환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시절 유독 편지쓰기를 좋아하던 친구는 직접 건네주어도 될 편지를(물론, 같은 반이었으므로...) 예쁜 편지봉투에 우표까지 붙여 집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편지를 받을 때의 느낌은 산뜻하고 즐거웠지만, 답장할 때의 나의 심정은 글 쓴다는 것이 영 번거로운게 아니었다. 글보다는 말이 앞서는 나였기에 말이다. 그 덕분에 친구의 섭섭함은 말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스스로 체념하는 듯 해보였지만 말이다.

결핵 환자를 위한 모금운동으로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실을 거의 의무다시피 반친구들이 샀는데, 용돈 때문에도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편지 쓰는 것을 즐겨하지 않던 나로서는 실을 사는 것 자체가 쪼금 아까웠다. 그래서 머리가 굽어짐과 동시에 사는 것을 그만뒀나??(양심도 없지~~~)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편지를 애용하지 않는 만큼, 크리스마스실도 전자메일의 형식으로 바뀌어서 인가 싶다.

학창시절 문구점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편지지, 우표가 서서히 자리를 감춘 듯하



▶▶ 최초 기념우표와 1945년~1949년 우표

다. 아마도 정보화의 급속화 때문이리라... 우편이면 빠르게는 3,4일 늦으면 일주일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데 비해 e메일은 채 1분도 되질 않아 수신이 가능하니 사실, 우편은 경쟁력이 없다. 요즘 들어서는 e메일도 느린 냥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 빠르고 편리한 세상이다. 한국인의 '빨리, 빨리' 정신에도 들어맞아서 일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인터넷의 보급률은 대단하다. 다양한 정보, 빠른 서신의 편리한 이용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내용을 빨리 전할 수 있으니, 그만큼 인간관계의 깊이도 더 풍부해졌을 것이리라... 하지만 꼭 그러하지도 않은 듯하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일까? 얻은 정보는 읽는 그 순간에만 기억에 남을 뿐 지나고 나면 머리 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전자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쉽게 써서 금방 받아볼 수 있으니, 깊이 생각하고 정성들여 쓰질 않는다. 써서 보낸 후 다시 금방 보낼 수 있으니, 예전의 편지보다 신경이 덜 쓰이는게 사실이다. 메신저는 더욱더 그러하고... 그래서 글속에 무미건조함이 조금은 흐르는 듯 하다.

빠르고 편리한 전자메일!! 그리고 메신저~~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 말했듯이 '느림의 미학'으로 잠시 돌아가 봄도 나쁘진 않을 듯 싶다. 편지 보내는 것에 대해 즐겨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웬지 오래만에 그렇게도 편지쓰기를 좋아하고 유독이 내게 편지를 자주 보냈던 친구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예쁜 우표까지 붙여 보내고 싶어진다.

문화도시 광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광명문화원 | 사무국장 이종락 ■

문화란 말은 이제 익숙해졌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십수 년이 흘렀고 전국의 자치단체 어디를 가도 문화도시란 말은 가장 애용하는 화두로 떠오른다. 그러나 외치는 구호만큼 문화적 내실을 다지고 있는가는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인류가 동물의 습성에서 벗어나 자연을 일구고 개간하면서 문화는 인간의 생활양태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다.

우리사회 역시 5천년 역사를 통해 농경문화, 도시문화, 군사문화로 상징되는 사회적 문화현상속에서 면면이 삶을 이어왔다.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던 시절, 문화니 축제 따위의 단어는 배부른 자들의 유희로 잘못 인식되었으나 문화는 그 어떤 시대에도 고유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었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21세기 요즘, 우리는 유사 이래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의 요구와 분출을 맞이한 적이 없다.

국민의 정부들어 문화예산이 처음으로 총예산의 1%를 넘어섰고 자치단체마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축제는 기본이고 향토인물을 도시의 캐릭터로 형상화하거나 소설속의 인물조차 연고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도시의 대표적 캐릭터로 이미지화하는데 열을 내고 있다.

광명시는 81년 개청 이래 20년의 세월동안 베드타운으로 불리는 위성도시의 면모와 이미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주민들의 연간 이동률이 20%이상 되는 도시에서 지역의 문화와 교육, 언론이 찬란한 꽃을 피우기는 어렵다. 역으로 문화와 교육의 부재가 주민의 이동을 부채질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먼저나 알아 먼저나 식의 논란은 한없이 부질없다.

요즘 광명은 도시의 지도가 바뀌는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의 동명륜장 건립, 경부고속철 건설, 음악도시를 꿈꾸는 음반밸리의 조성, 하루가 멀다 하고 도시 곳곳에 솟아나는 대형건물 등 이러한 변화는 오래된 아파트재건축과 맞물리면서 광명시에 투기지역이라는 명예(?)를 선사해주기도 했다.

개발도시 광명위에 2민되는 광명문화, 시민들의 문화지수는 서울과 비슷 ● ● ● ● ● ● ● ●

광명시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개발 환경속에 광명시의 문화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광명시는 광명문화원과 광명예총이 사실상 문화예술 행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광명농악, 시민국악단, 시립합창단 등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작고 소박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어 미술과 음악 등의 분야에서 무대위의 주인공으로 서는 현상들은 매우 고무적이다.

광명시민들의 문화체감도는 어느 수준일까?

문화와 예술은 뿌린 만큼 거둔다는 자본주의적 논리는 차치하고라도

광명시민 역시 다리 하나 건너 서울을 근거리 생활권에 두면서 문화기대수준은 무척 높은 편이다.

광명시 역시 교육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볼 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문화기반시설을 보면 철산동의 시민회관이 그나마 35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일한 문화예술 공연의 메카로 자리 잡아 왔다.

광명5동에 위치한 광명 문화의집, 광명시 청소년문화의집, 소하동의 여성회관 등이 공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전시, 공연장 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지만 아직 변변한 향토사료관 하나 없어 이제나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 향토위인으로 오리원익 대감의 기념관과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지만 광명시 입구나 어디에도 동상하나 보기 힘들다. 지역축제 역시 오리문화제와 구름산예술제가 봄가을에 개최되고 있지만 광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명동의 가구문화, 패션문화의 거리, 하안동의 자동차문화, 철산동에 문화의 거리 등이 있지만 문화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다.

대표적 문화축제 개발 시급, 예산은 확충과 함께 엄격해야, 지역속의 지역축제 기획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첫째, 광명의 대표적 축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축제는 이제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21세기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자치단체의 브랜드 및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있다.

광명은 문화유산이나 자산이 타시에 비교해서도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광명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각오로 새로운 축제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시에서도 광명시를 드높이는 전국적 축제의 기획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관계자들은 광명시를 벗어나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축제의 참관과 참여를 통해 안목과 실질능력을 습득하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면 외부의 도움과 함께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둘째, 예산은 확충하되 집행에는 객관성과 엄격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예산과 관련해 현장의 소리는 늘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이다. 부수고 짓고 도로 깔기에 급급했던 우리사회에 문화예술은 소모성사업이라는 미운오리 새끼로 취급당했고 아직도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인사들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주어진 예산으로 똑같은 단체가 비슷한 행사를 되풀이 하면서 창의와 기획 없는 무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묻고 싶다.

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 내용상의 질보다는 관객의 수로 행사를 평가하다 보니 행사의 모든 초점이 관객의 수에만 맞춰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 반드시 극복돼야 할 문제이며 일차적으로 행사기획자의 분명한 소신과 철학과 함께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유연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속의 지역축제를 살리는 일이 문화도시의 첫걸음이다.

광명 내에서도 철산2동의 벚꽃축제, 하안5단지의 주민축제, 광명5동의 너브대축제 등이 봄가을에 열리면서 주민화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사의 내용이 노래자랑이나 먹거리장터에서 벗어나질 못해 제자리 수준을 맴돌고 있다.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획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축제와 관련된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름의 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역의 음악인들이 시민회관 주변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음악회를 열수도 있고 문화의 거리에서 화가들이 그림전시나 시민들에게 캐리커처, 세미초상화를 그려주는 행위, 작은 음악회 등 역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문화예술의 구체적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불가피하다.

문화예술가들의 자발적 행위에 시의 후원이 결합하면 멋진 작품이 나오리라 본다.

문화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한 주체는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과 기획, 진행의 삼박자가 서로 호흡을 맞추고 광명의 문화를 책임진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어 보자.

안양천의 물이 맑아지는 날, 안양천의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한여름밤의 꿈을 광명시에서보고 싶다면 지나친 소망일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 박현수 | 광명 서면초 5 ■

어린이 기자단에서 취재하기 위해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견학을 갔다. 자연사 박물관은 처음 가는 곳이라서 매우 기대되었다.

제일 먼저 3층에 있는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3층에는 지구의 탄생에 대한 자료가 있는 곳이었다. 그 덕분에 지구의 탄생 과정과 태양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지구는 탄생 할 때, 폭발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화산으로 덮여있는 땅과 바다가 마그마였던 행성은 도저히 지구라고 볼 수 없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산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2층에서는 생물의 탄생과 진화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자연관에서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박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박제해 놓는 것 자체가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박제된 동물들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불쌍하기도 했다. 특히 커다란 코끼리가 박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은 커다란 몸을 보고 매머드인 줄 알았다. 그렇게 종류가 많은 코끼리 가운데 멸종위기에 처한 코끼리를 박제한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끼리가 전시되어 있는 옆 전시실은 재해관이었다. 재해가 일어나서 무너진 동굴도 있고, 이 곳에서 발견된 암석도 있었다. 보통 유원지 같은 곳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돌들 같았다. 돌맹이들은 빨갭거나 검거나 빛나기도 해서 집에 가져가고 싶을 만큼 예뻐다. 그런데 워낙 귀한 돌이고 나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고 왔다.

재해관 마지막 방은 세계지도로 꼭 채워진 방이었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은 빨간색 표시, 지진이 일어난 것은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4군데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섬나라여서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

마지막 일층에는 생물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환경관에는 곤충과 작은 파충류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살아있는 도마뱀이 전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다. 그리고 그 곳에는 커다란 가로수만한 가짜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달린 투명한 공속에는 나무에서 우리가 얻는 재료들이 들어 있었다. 종이, 열매, 과일로 만든 음료수, 목재 등이 있었는데 새삼 나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환경관 밖에는 공룡화석이 있었다. 정말 크고 진짜 같아서 금방이라도 나한테 달려들 것만 같아서 신기했다.

그리고 공룡영화 '딩키'를 보았다. 착한 공룡 덩키와 나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하는 입체영화였다. 안경을 쓰고 봤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가장 스릴 넘치고 재미있었다. 나쁜 짓을 하면 사람도 벌받는데 공룡도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절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나쁜 짓 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공룡전시관을 나오면서 공룡퍼즐을 샀다.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공룡을 실컷 볼 수 있는 견학이어서 정말 기뻐다. 그리고 나무 같은 자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나, 자원,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 일어나는 재해의 피해도 알 수 있어서 큰 공부가 되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동물들을 박제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불거리를 위해 박제가 된 많은 동물들의 모습이 불쌍했다. 동물을 보호하려면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 찾아오는 길

삼성 교통 박물관

■ 최동석 | 광명 광성초6 ■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지창수, 박태곤은 같이 앉았다. 뒤에 앉으니까 키차이가 더 많이 나는것 같았다. 특히 지창수하고. 우리는 가는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했다. 영화 얘기 뭐 나는 비오는 날 링을 봤다 무섭다... 등등 참 재밌었지만 난 영화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할 얘기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나는 무서운 영화는 원재 싫어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에버랜드가 지나갔다. 그리고는 에버랜드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러더니 다 왔다. 2시까지의 아직 시간이 있어서 김밥을 먹구 데리고 다니는 애는 강제로 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 우리는 그것을 시행할리가 없지...

난 그 6학년 여자에 동생을 맡았기 때문에 원재 그 6학년이 잘 하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지창수하고 나는 잠자리잡기를 했다. 고추잠자리도 보고 태극잠자리도 보았다. 지창수하고 나는 열받아서 막 가방으로 쳤는데 맞지도 않는다. 어쩌다 지창수꺼 맞았는데 어디간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워 몰래 교통박물관 들어갔다 나오는데 걸렸다.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은 장난기가 많으셔서 다행이었다.

그 다음에는 삼성교통박물관에!

들어가서 친정환 안내 누나에 설명에 따라서 움직였다. 참 재밌는 차가 많았다. 거기서는 처음 차가 눈에 띄었다. 자전거같이 생겨서는 위에 바람막이도 없고 참 이상한 차였다. 벤츠 1호차라고 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계속 발전해서 미래인 고성능 카까지 봤다.

야~~~~ 그다음 문제를 풀면서 다시 요점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포드차도 다시 봤고 못 본 차도 다시 꼼꼼히 보았다. 이런 문제는 참 재밌었다. 박태곤이 많이 알려주고 했다. 타임머신(MBC방송에서 하는 것)에서 본 포니탄 차도 있었다. 참 재밌는 구경이었다.

답사도 말구~~~~~ 하하하~~~~~



광명시...

2003년 청소년 어울마당 "광명청소년 박사를 찾아라!!" - (2003.7.19)

광명시 지역복지봉사회(조승철회장)는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중, 고등학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청소년 어울마당 "광명청소년 박사를 찾아라" 행사가 열렸다.



제14회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school Music (특별출연 테너 김종호, 가수 신형원)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8월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송영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베니예수 외 20여곡이 연주되고 성악가 테너 김종호와 가수 신형원이 특별 출연한 가운데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 1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영어로 들려주는 "심청전"

광명문화원 - '어린이 영어 연극단 제 6회 정기공연'

방학을 하루 앞둔 설레임 못지않게 가벼운 발걸음들이 이어지는 곳이 있었다.

'광명문화원 어린이 영어 연극단'은 7월 25일 평생학습원 공연장에서 발표회를 겸한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1998년 1회 공연 '크리스마스 캐롤'을 시작으로 벌써 6회째 정기 공연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공연은 '효녀심청' (THE GOOD GIRL SHIM CHONG) 으로 광명 시내 초등학교 단원 심봉사 역의 남준모 (하안초 3), 조동우 (도덕초 4), 심청 역의 고여진 (광명초 3), 귀덕엄마 (하안북 3) 등 16명이 열연을 했다.

하안3동 주민자치센터 특강 '인기'

하안3동 주민자치센터(동장 석영만)에서는 긴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특기를 개발하고 여가선용을 위해 8월4일 힙합댄스의 개강과 함께 4개 강좌의 특강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강좌별로 최고 1만5천원(힙합댄스)부터 5천원(부모와 함께 하는 안보 현장견학)의 저렴한 수강료로 신청자가 모집당일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보였다. .

경기도...

제2회 경기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

도자기 명소인 경기도의 이천과 광주, 여주 3개 지역에서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축제가 열린다. 본래는 따로 열렸지만 시너지효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프로그램에 차별화를 기했다. 주행사장인 이천에서는 각종 공식행사 외에도 흙밟기, 도자밟기 등 체험위주의 도예교실이 여행객들을 위해 준비된다. 그리고 왕실도자기로 유명한 광주에서는 조선조 명품도자기들을 전시하는 조선도자 500년 전, 생활도자기산지인 여주에서는 피카소도자 특별전이 각각 열린다. 031-631-6509



부천만화축제 10월2일 개막

국제만화축제인 제6회 부천만화축제 가 오는 10월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전관과 송내역 일대에서 열린다.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경기도, 부천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만화 전시회인 국제코믹북페어, 전시학술행사, 만화관련 산업전과 일반인 참여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국내외 출판만화 관련 작가, 출판사들의 교류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국제코믹북페어는 국내외 출판 만화 경향을 가늠해 보는 자리로, 국내만화관, 해외 10여 개국 50여개 출판사가 참가하는 해외만화관, 만화동호회 작품전인 동인지관, 출판만화견본시(이하 BPP) 등으로 구성된다. BPP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리며 만화출판사, 팬시완구·모바일 업체 등 50여 개 사와 만화창작가 만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만화진흥 정책에 대한 진단 및 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 디지털환경에서의 출판만화 저작권' 토론회와 마시마로 성공전략' 프랑스 출판만화시장 현황' 주제 강연도 마련된다.

이밖에 제1회 코스튬플레이대전, 한국애니메이션상영회, 어린이만화전, 만화책독시장, 만화캐릭터전시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올해는 한국 대표 만화가 10명의 동판 핸드프린팅 전시도 시도된다. 축제가 끝난 후 이 핸드프린팅은 해당 작가 애장품과 함께 한국만화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보관될 예정이다. 모든 행사가 무료다.

전국...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의 세기를 맞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질 문화제전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주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003년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주 보문관 광단지 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에서 72일 동안 열린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신라왕조 왕릉에서 출토된 천마도를 바탕으로 상상과 신화의 꿈을 현실 속에서 찾아보려는 의지를 담은 「천마의 꿈」이다.

부제는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함께 그러나 다르게(Harmony in Diversity)」로 정했다.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서라벌의 문화자산과 역량을 현대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재해석하고 새롭게 보여주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다양한 문화 엿보기와 특색 있는 행사로 이루어진다.



200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003년 축제는 내년 8월 열리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연계해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축제의 주제는 대구유니버시아드에 맞춰 하회탈 가운데 남성적 힘을 상징하는 '백정'으로 정할 방침"이다. 낙동강변 이벤트공원, 하회마을 등지에서 다양한 탈춤공연을 볼 수 있다.

이야기 오리대감

이공의 뽕나무



선조16년, 당쟁에 휩쓸린 이의 이름을 대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뽕치지 않아 과면을 당하고 만다.



다음해 부친상을 당하고 3년상을 마친후

산전을 유람하며 산수를 즐겼다.



전하 - 이왕이면
농학 연구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
이름만!



조정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단
일이오?



백성이 없으면 나라와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식량을 내어 주시오



지금이 파종의
적기이니
집집마다
준비를 시키라



흉년의 추수기를 맞아
각처에 도적이 날뛰니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하라!



오 미대감이 오시더니
우리 마을 살만하네



사람 오래 살고
물 맑아게도



그래, 이공이라면 농학
감당 할 수 있을 것이요
경들의 생각은 어떨소?

앞근임조



성온이
망국하십니다.



무시한주방은 흥해하기 이름에 걸는
병이었는데



낙동강 이공은
단신으로 강을 떠났다.



새로운
목차리는데

백성들의 얼굴을
보느 시는 공을
집착하구나

충 -
그놈이
그놈이지



어쨌하면
미공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할 수
있을까



방들의 불은 많지만
백성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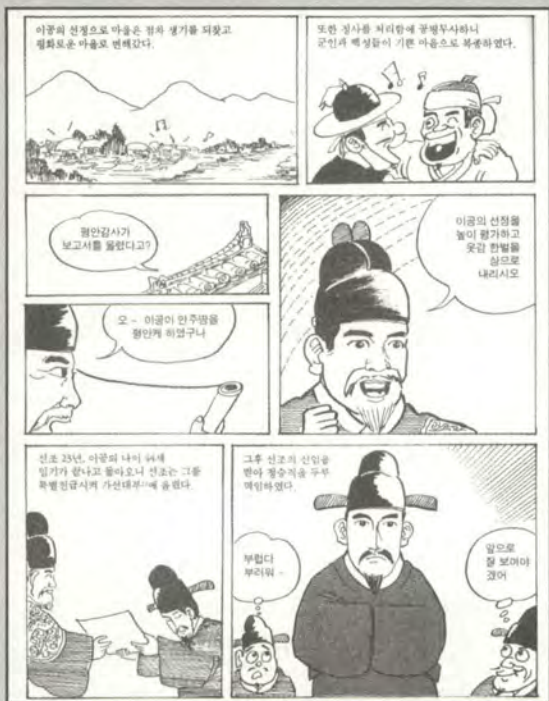


그래, 뽕나무를 심는거다.
뽕나무를 상이 양장임을 함께하면
농가소득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뽕다려
가세 -

뽕도 보고
뽕도 따고



어머니의 빗깄

그 하얀 그리움



■ 권복희 | 금천구 독산1동 ■

오늘따라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그리롭다.

이승과 인연의 끈을 끊기를 그리도 힘들어하시면서 1년여 동안 투병 중이시다. 차창으로 올라오는 아스팔트의 열기 때문일까? 52년 전 더위가 무르익어가는 6월 27일 오 남매 중 넷째인 나를 낳으셨던 어머니의 빗깄은 무엇일까 생각한다.

온통 하얗다. 이런 더운 계절이 오면 나들이 하실 때 참 빗으로 곧게 빗어 쪽 지신 머리에 하얀 세모시 치마저고리를 푸새 손질하여 입으셨다. 모습이 무척 단아하셨다. 외출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깨끗하게 닦은 흰 고무신 코를 아래로 빗마루에 걸치어 말리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흰빛은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집 안일은 여자만의 일로 여기시고 웬만한 시멘트 일을 손수 손보셨던 어머니와 함께 일년에 봄, 가을 연중행사도 있었던 문 바르기는 우리를 세 딸의 몫이었다. 가장 어린 나의 역할은 문종이 뜯기, 창틀청소와 방울방울 생겼다가 푸욱 꺼질 때까지 저어야하는 밀가루 풀 쓰기, 손잡이에 붙일 국화잎을 고르는 일이었다.

나는 이날을 무척 기다렸다. 무지개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새로 바른 창호지에 탄력을 주기 위해 어머니는 물을 입 안에 가득 담아 창호지 문 위로 그 물을 뿜어내시면 거기에는 무지개가 나타나곤 하였다.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의 물 뿜기만을 기다리곤 하였다. 그렇게 봄에 새로 단장한 창호지 문은 한 여름 내내 하얀 햇살을 방안으로 맞아들였다.

우리 집 장독대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정성들여 만드신 고추장, 된장과 간장이 들어있는 항아리에는 옛 서양여인들이 침대에 들기 전 쓰는 모자와 흡사한 촘촘히 짜여진 백색 욕망목 천 모자가 씌워져 해가 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이를 벗겨 자주 해바라기를 시키곤 하셨다. 이러한 정성과 오랜 기다림으로 만들어진 된장으로 끓인 뚝배기 된장찌개는 밥상 위에 놓여져서도 남아있던 화력으로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상큼한 풋고추의 향내가 맴돌았다. 좀더 뽀뽀한 된장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갓 찌낸 호박엿과 함께 올려져 잃기 쉬운 여름철 입맛을 되찾아주었다. 결혼 초 남편의 식성에 따라 서울음식을 준비해야 했던 나는 얼마나 어머니의 음식 맛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교육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월급날이 다가오면 ‘빛이 없으면 부자’라는 아버지의 부자지론에 설득당해 알뜰살뜰 살림하셨던 어머니도 담장 밖, 과일 파는 아저씨의 외침이 들리면 놓치지 않고 제철 과일을 사두

한 평생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시면서 가족에게 사랑과 안식을 주시고는 이렇듯 지나간 침묵의 고통을 외로이 감내하고 계시는 어머니께 엎드려 용서 받고 싶다. 그리도 좋아하시는 하얀색, 소복 입으시고 육신의 끈에서 해방되시길 빌어본다. 많은 별들이 함께 하여 외롭지 않으실 천체로 하루빨리 입성하시기를 비는 이 딸의 때 묻은 마음을 두 손 모아 용서 받고 싶다. 77

Missing

시곤 하였다. 어머니의 치마 속 흰색 인조 속곳에 달려있는 그러한 주머니를 우리는 요술주머니라고 불렀다. 여름에는 작은 빙산 덩어리 한 개와 함께 커다란 그릇 속에 담겨있는 수박과 참외는 찌는 듯한 더위를 금방 식혀주는 우리들의 청량과일이었다. 그리고 찐 하얀 찹쌀밥을 밥알 한 알 한 알 떼어내어 말리시던 돗자리가 해 맞이하는 마루의 여름철 정경이 그림다. 이 여름 그때의 그 미숫가루가 마시고 싶다.

어머니는 무척 부지런하셨다. 일찍 일어나 청소와 머리 손질, 몸단장 하신 어머니를 보고 부스스 일어나 마주치는 첫 마당 풍경은 늘 어느 틈에 샅으셨는지 눈이 부실 정도의 새 하얀 옷들이 이미 빨랫줄에 걸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모습이었다. 바람에 날리고 있는 빨래를 여인네들의 '승리의 깃발'로 묘사한 글이 있는데 자식들 걱정으로 까맣게 타 들어간 마음을 그렇게 새하얗게 빨아 바람에 날리면서 당신의 승리감을 맛보셨는지도 모르겠다.

추운 겨울 하얀 호청을 삶아 푸새하여 다듬이질 한 후에 다리미로 마무리 하여 새로 꾸며진 이불과 요는 우리에게는 산뜻하기보다 선뜻한 것이었다. 따뜻함을 느끼려고 들어가는 이불 속에서 사각사각 흰 눈을 밟는 소리가 한기를 느끼게 하였지만 우리는 꽤나 이 소리를 즐겼던 것 같다. 이러한 추억을 간직하고 딸에게 빨래 삶는 냄새가 구수하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아직까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침 준비하시던 음식 냄새와 아우러져 잠결에 나의 코끝을 간질였던 그 냄새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막내딸 집으로 마지막 외출이 되었던 십여 년 전. 벚꽃 잎이 눈처럼 날리던 하얀 날이 떠오른다. 그 계절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가람인 도리사를 구경하시면서 지천으로 널려있는 쭉, 냉이들을 무심히 지나치는 딸을 용서해 달라고 말해 도시생활을 하신 시어머니를 당황케 하셨다. 이해할 수도 없었던 어머니의 그러한 자식걱정을 무심히 지나침을 지금 나는 후회하고 있다.

한 평생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시면서 가족에게 사랑과 안식을 주시고는 이렇듯 지나간 침묵의 고통을 외로이 감내하고 계시는 어머니께 엎드려 용서 받고 싶다. 그리도 좋아하시는 하얀색, 소복 입으시고 육신의 끈에서 해방되시길 빌어본다. 많은 별들이 함께 하여 외롭지 않으실 천체로 하루빨리 입성하시기를 비는 이 딸의 때 묻은 마음을 두 손 모아 용서 받고 싶다. (2003년 6월 4일)

7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다. 지상의 자식들을 위해 돌아가시는 날까지 시간 걱정을 하셨나 보다. 장지에 모신 다음 날 새벽녘에 내린 폭우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 하였다. 모든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청개구리'가 아닐까? 그 동화 작가의 그 때의 그 마음이 타임머신을 타고 나의 가슴에 전해 온다.

어머님 영전에 이 글을 바칩니다.

‘보삐네 집’에서



■ 철산3동 주부 | 공청란 ■

내가 9살 때 언니와 사촌 동생들과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이 정원은 2년 동안 살았던 보삐네 집의 앞마당이다. 주인집 강아지 이름이 보삐라서 우리 가족은 늘 그렇게 부른다.

지하 단칸 셋방에서 다섯 식구가 살았다. 방의 천정이 너무 낮아 장롱을 눕혀 놓고 썼으며 대낮에도 컴컴하던 방안과 좁은 부엌이 있었다. 그 곳에서도 요술쟁이 같던 엄마는 영양식빵이며 김치전, 고구마를 척척 내놓으셨다.

구더기 끓던 재래식 화장실을 끼고 돌면 나오던 아담한 장독대에 자주 올라가 황당한 공상을 펴기도 했다. 그 장독대의 높이가 내 키보다 조금 더 컸는데도 내려다보는 것이 즐거웠다. 냉장고가 없어도 좋았고, 텔레비전이 없어도 좋았다.

장미꽃이 무척이나 고풍적이던 그 집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캔디’라는 만화 속 주인공인양 장미 오솔길을 걸어 다니던 나.

전에 살던 목장 집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던 날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공동화장실이 아니었고, 부엌도 따로 있는 사람을 위해 지은 집 이 라고 좋아했다. 짐바리 자전거로 옮겨던 이삿짐이 조금씩 늘어가며 우리도 무럭무럭 자랐다.

사진을 찍은 이 날은 언니와 사촌 동생 석진이, 석호와 함께한 추석날이었다. 유난히 식탐이 많던 배불뚝이 동생 석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 안에는 그 애 몫의 과자와 사탕이 들려있다. 많은 주전부리로 즐거워하던 그 명절 얼마 후에 삼촌은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애들과 맞는 마지막 추석이 될 줄 알았다면 먹을 것에 아귀다툼 하지 말 것을 가슴이 아린다.

장미가 만발한 정원에 오도카니 서서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던 내가 캔디가 아니었을까...





발언대 - 공익근무를 하며 ...

■ 김수언 | 문화공보담당관실 ■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광명시청에 들어와서 근무한지 이제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다…….

긴 세월 일수도 있고……. 짧은 세월이라 말할 수도 있다. 훈련소 들어가서 …… 훈련을 받고 나와 사회에 봉사한다는 공익 근무요원…….

솔직히 맘에 드는 건 아니었다. 모두들……. 공익 근무라 하면……. 제일 먼저 들먹이는……. 방위나……. 도시락……. 그것들이 왜 공익근무를 대처하는 소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를 판단하게 되는 매개체가 되어 버린 다는 게 공익요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싫게 만들었다.

내가 들어와 일하게 된 곳 '문화공보계' 그과는 소문부터 좋지 않은 그런 곳였다……. 일명. 노가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곳였던 것이다.

저녁에 일을 해야 하는 나로선 힘든 상황 이었다…….

낮과 밤을 일해야 하는 난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에 그냥 몸담아 일을 했다.

하루 이를 날이 지나며 난 문화원이라는 기관에 배치되었다.

문화원이란 곳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행사와 자리를 마련하는 곳으로서 광명시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단체중에 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힘들고 시간만 축내는 그런 공익생활이 아님을 …… 세삼 느끼게 되었다.

일단 내가 들어오자마자 있었던 행사 청소년 축제 그 축제 덕분에 무대 설치를 배웠다.

무대 설치하는 만들며 느끼는 단합과 다 만들어진 무대를 보며 느껴지는 포만감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행사 하나 하나 해가며 책임감이란 것도 배울 수 있었다.

2003 오리문화제 그 행사는 말로 하기 힘든 뿌듯함이 있는 행사이다.

그 행사는 광명 시민전체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아주 큰 행사였다.

그중 나의 가슴을 파고든 것은 2가지가 있다. 안치환, 양희은의 우리시대 콘서트 그날 정말 행사 시작하기 20분전. 난 별로라 느꼈던 공연장에 가득채운 인파. 모두들 공연시작하기만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난 아무 이유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은 한가지는 문화장터 였다. 지금시대의 아이들은 물론 나도 보지 못한 옛것들. 지게, 마차, 등등. 민족을 다시 생각게 하는 그런 행사였다. 행사를 마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 하는 공익요원의 소재 방위, 도시락 등은 단지 아무 의미 없는 단어에 불과하단 것이다. 내가 20년 이 넘는 세월동안 배워오지 못한 것들을 배웠고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 뒤편에 내가 있었다는 것 난 할일 없는 공익이 아니라 시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 누구도 공익을 나쁘게 볼 수 없다는 확신이 섰다.

이런저런 행사를 하며 세상사는 관점도 넓어지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도 많이 늘어났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보다는 자랑스럽지 않지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기간동안 사회에서 힘을 쓴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젠 군대 이야기에 열중하는 친구들을 만나도 부끄럼 없이 공익근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앞으로 공익근무가 방위, 도시락이 아닌 다른 소재로 기억되었음 한다…….

TV 인간극장 II

정영미 저

■ 문화저널 | 편집부 ■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는 소설 같은 극적인 삶에 어떤 이는 냇물 같은 잔잔함 속에도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일부는 용기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생동안 나 혼자서는 질 수 없는 무게를 간접적으로 알기위해 “남의” 이야기에 열광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지도 모른다.

일주일 내내(주말은 제외) 저녁의 중간 시간인 9시 언저리에 KBS2 텔레비전을 틀면 우리 이웃의 보통 사람의 삶이 라이브로 20분간 나온다. 이름마저도 극적인 「TV 인간극장」, 이 시간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가끔은 송대관이나 하리수 같은 연예인도 나오지만-의 평범하지만 곱절 많은 인생이 날것인 채로 우리의 안방까지 전달된다.

그 프로를 보면서 사는 모습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용기에도 감탄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면 카메라로 찍고 다시 정리하여 보는 이에게 새로운 의미로 가공하는 사람의 노력에도 재삼 감탄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다하지 못했지만 또 숨어 있을 그들의 이야기에 궁금증이 동할 때도 자주 있다.

수백편의 방영분 중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일 수밖에 없는 “작지만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모아 재구성한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도 그대로인 「TV 인간극장2」.

몇 해 전 1권이 나오고 2권이 나온 것이다. 「충무로의 전설 찍지! 남기남」을 비롯한 6편의 이야기에는 스쳐 지나가는 화면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오롯이 담겨 있어서 시청 중에 궁금했던 알팍한 호기심에 대해서도 충족시켜주고 더불어 남의 삶을 엿보며 배우는 삶의 무게까지도 가르쳐준다. 작가인 정영미는 오랫동안의 작가 생활을 바탕으로 주인공들의 삶에 충분히 다가가도록 인도해준다. 글을 읽다보면 마치 읽는 이가 카메라를 들고 주인공의 삶에 들어가 인터뷰하고 나레이션을 하는 듯한 착각마저도 느끼게 한다.

더 좋은 점은 글의 재미를 넘어 주인공들의 삶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진행형의 인간임을 놓치지 않고 주인공들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어우러져 이 책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사족을 붙이자면 남기남 감독은 작가의 바램대로 이번 여름에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큐라」로 나름대로의 재기를 충분히 이루었다. 현재진행형의 삶을 우린 눈앞에서 바라보는 재미까지도 느끼게 된 것이다.

| 광명문화원 소개 |

광명문화원은 우리 생활속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마당 '광명문화원'으로 오십시오.

"본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1992년 4월 개원한 문화단체로 전통문화계승·보존과 지역 문화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 지역문화행사 개최
5월 오리문화제 / 10월 어린이문화장터 등
- 향토사의 조사 및 새로운 문화의 발굴
향토사연구소/문화의집
-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및 선양
오리이원익 기념관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언론활동
광명문화저널/광명어린이신문 발행
-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회교육활동
어린이기자단(광명어린이신문)
어린이영어연극단
어린이합창단(노래친구들)
남성중창단
청소년만화창작단(청개구리)
청소년연극단(울터)
청소년영상단(필름참고)
여성회 주부노래교실
주부영상단(해오름)
주부연극단(어울림)

광명문화원 회원의 특별한 혜택

1. 광명문화저널 등 각종 간행물 우송
2. 문화의집 강좌 수강료 10% 할인
3. 오리이원익기념관 프로그램 초청
4. 향토유적답사 등 기행프로그램 우선 초대
5. 여름·겨울 캠프 참가비 20% 할인
6. 어린이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10% 할인
7. 문화원 보유자료 및 서적열람 및 대출
8. 취미동아리 결성시 공간 등 편의제공
9. 오리문화제 등 각종행사 자원봉사 등 우선 참여
10. 문화원 회원증 발급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계좌로 입금
(내방,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연회비 : 30,000원
입금 : 농협 099-01-000054 (예금주:광명문화원)
- 문의 및 접수
광명문화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22-1 시민회관 3층
T: 680-6269/2618-5800 F: 688-4385
E-mail : kmcc410@hanmail.net
문화의집) T: 687-0556 F: 687-0557



| 문화원 임원 및 가족 소개 |

문화원 임원

원 장 정원조	광명2동 50-2 예담 한의원 원장
부원장 유홍무	광명4동 158-235 한빛방송 회장
부원장 안수남	철산2동 성림빌딩 402호 안수남 세무사사무소
부원장 곽향숙	철산3동 241-1 사회체육센터 외대어학원 원장
감 사 장병환	철산2동 463-18 경기매일 사장
감 사 윤 철	철산3동 222-1 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이 사 김경표	철산3동222-1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前의장
이 사 이현정	철산동 220-1 영우프라자빌딩 법무법인 광명, 대표변호사
이 사 안성근	광명4동 43-48 금호주택건설 대표
이 사 민완기	여의도동 맨하탄21 B/D 621호 (주)해오름 대표
이 사 조상욱	철산동 519-49 포세이돈하우스 (주)포세이돈하우스 대표
이 사 김미정	철산3동 245-5호 한영빌딩3층 메리트어학원 원장
이 사 김양주	하안동 53-1 골든힐빌딩603호 (주)두레식품 대표
이 사 김광식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49-1호 (주)케이알씨넷 이사
이 사 박준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육혁신위원회
이 사 최태천	광명시 하안동 556-16 넷스틸마스터 아세아

문화원 가족

문화원 사무국

철산3동 222-1
2618-5800
사무국장 이종락
관리과장 한옥현
간사 신란희

문화교육연구소

철산3동 222-1
2616-2392
소장 윤철
부소장 이종락
팀장 이은경

문화의집

광명5동 170번지
2680-6156
운영부장 심평섭
간사 정현혜
간사 한양신

청소년 문화의 집

광명5동 273번지
2680-6163
관장 윤철
운영부장 이은경
간사 권효선
간사 이정순

오리 이원의 기념관

소하 2동 1055-3번지
2680-6307
관장 김영환
간사 조선자

광명문화의집 작은음악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기에 작은 음악회가 있다.

이번 달로 8회에 접어드는 작은음악회는 음악을 통한 세대간의 화합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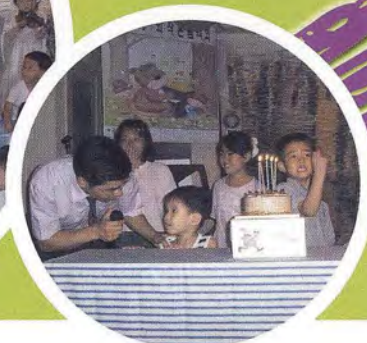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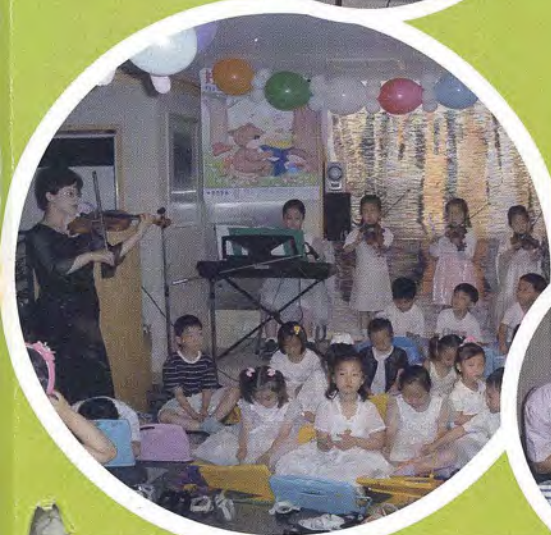
그동안의 음악회는 보고 즐기는 것이었다면, 이곳의 작은 음악회는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내가 바이올린을, 당신은 노래를, 우리는 합창을 함께 부른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작은음악회를 통해 서로를 알고 친해진다.

음악은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앞으로도 작은음악회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제8회 작은음악회
- 제9회 작은음악회
- 제10회 작은음악회
- 제11회 작은음악회

2003년 9월 26일(금)

2003년 10월 25일(토) 너부대한마당

2003년 11월 21일(금)

2003년 12월 26일(금)

문의 : 광명문화의집 : 2687-0556

제1회 광명시 청소년 만화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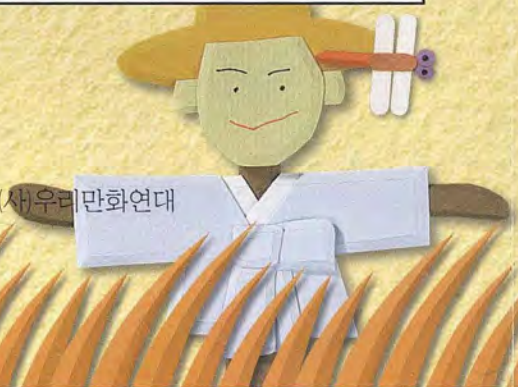


제1회 광명시 청소년 만화공모전

- 일 시 : 2003년 10월 11일 오후 2시
- 장 소 : 광명시 실내체육관 야외마당(이후 평생학습원등에서 전시 예정)

대 상 부 문	광명시 관내 초,중,고생
작 품	2쪽 ~ 4쪽 이내의 이야기만화(흑백 가능, 칼라 색채시 가산점)
주 제	자유롭게 또는 광명시를 소재로 구성
크 기	B4사이즈(만화원고용지 또는 쉐트지)
시 상	부문별 최 으뜸상 1명, 으뜸상 2명, 버금상 3명, 특별상 1명 총 21명 초등부 최 으뜸상 상금 10만원 / 으뜸상 상금 5만원 / 버금상 2만원, 특별상 3만원 중등부 최 으뜸상 상금 15만원 / 으뜸상 상금 7만원 / 버금상 3만원, 특별상 5만원 고등부 최 으뜸상 상금 20만원 / 으뜸상 상금 10만원 / 버금상 5만원, 특별상 7만원 (※ 상금은 해당 금액의 문화상품권)
시 상 자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교육장, 문화원장임.

- 작품접수 : 10월6일(월) ~ 10월 8일(수) 오후 6시
- 접수처 : 광명문화원,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 문의 : 광명문화원(02-2618-5800)
- 주 최 : 광명문화원
- 후 원 :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교육청, 광명시 평생학습원, (사)우리만화연대



광명어린이신문 창간 8주년 어린이 문화장터

- 일 시 : 2003년 10월 11일(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광명실내체육관 야외마당

광명문화원 문화학교
만화창작단
어린이 기자교실
회원모집

수업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5시 30분 (만화단)
매주 금요일 오후 4시~5시 30분 (기자단)
대 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문 의: 광명문화원 Tel) 02-2618-5800, 02-2680-6269

